【一】 第五千八百五十一號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土曜日) 昭和十三年八月二十八日 (日刊)

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敵의重爆三機擊墜코 列車數十臺爆破
上海의壯烈한空中戰

【上海二十六日發同盟】 昨二十五日 夕刻 上海上空으로 敵말틴重爆機三機가 飛來하여 옴으로 我空軍機數는 即時 出動하야 이를 追跡하자 곳 一機를 擊墜식히고 眞茹上空에서 나머지 二機와 壯烈한 空中戰을 演出하야 兩機를 擊墜하여다 이로서 虹口上空을 脅威하던 敵優秀機는 殆半 潰滅된셈이다

【上海二十七日發同盟】 ○○艦隊報道班發表
一、陸戰隊方面은 依然滿을 待하야 對峙中이나 我海軍機는 正面의 敵에게 爆擊을 繼續하야 南翔 崑山 虹橋 方面의 敵과 軍需輸送中의 敵列車數十臺를 爆破하엿다
一、昨日 英國大使의 奇禍에 對하야 ○艦隊司令官은 杉山參謀長으로 하여금 昨日夕刻 英國東洋艦隊旗艦에 長官을 訪問케하야 慰問의 辭를 述케하엿다

千田部隊岔道城占據

【平綏線岔道城二十七日發同盟】 千田部隊主力은 二十七日午後六時 八達嶺을 突破하야 東南約二粁의 岔道城을 占據하고 다시 前進, 一部部隊는 二十七日早朝부터 延慶方面의 敵을 掃蕩하기爲하야 追擊을 開始하엿다

敵一機又飛來

【上海二十七日發同盟】 二十六日 午後十一時五十五分 支那軍飛行機一機는 突然 虹口上空에 突入하야 爆擊을 行할려하엿스나 我虹口로부터의 射擊을바다 今朝午前○時五分 目的을達치못하고 逃亡하엿다

青島邦人
明日中全部撤退

【青島二十七日發同盟】 青島의在留邦人은 마친내 全部撤退하게 되엿스며 青島海軍에서는 在留邦人의撤退를明日로써完了하게 될 希望하고잇다 大鷹總領事는 昨二十六日正午來省에 引揚을 命하고 在留邦人撤退에對하야 不法行爲를 버릴念慮가잇슴으로 現地海軍에서는 警戒를 一層嚴重히하야 撤退가 全部終了되기까지 現在의 態勢로써 監視를 繼續하기로 되얏다

英大使負傷과 그後聞

遭難한휴겟센大使

遭難當時의狀況
同乘하엿든『프』大佐談

【上海二十六日發同盟】 遭難者의 一人인 英國大使館附 陸軍武官 라바트·프레자大佐는 事件의模樣에 對하야 左와如히 말하엿다
一行은 自動車二台에 分乘하고 午前八時 南京大使館을 出發하야 南京으로向하는途中 午後二時半頃 突然疾走하는 我自動車를 指目하고 後方에서 機關銃彈이 飛來하야 自動車에命中하는 듯한 느낌이 잇섯슴으로 自己는 卽時停車하고 周圍를 살펴보니 約二百米의 低空에 飛行機가 飛翔하는것을 發見하엿다 그러자 第二의 飛行機가 爆彈을 投下하야 道路外田中에 落下炸裂하자 自己와 또車外로 나왓든 휴바치氏는 함께爆彈이 發하야自己는 손수大使의 自動車를 運轉하고 自己뒤에 大使 其左側에財政顧問휴바치氏가 타고 잇섯다 無殤으로부터 길을 當默으로 轉하야大 이炸裂하는바람에 찻가운데로 자라떠러젓다 大使는 車中에서 負傷하고 若痛함으로 自己는 卽時大使의 流彈을뽀빼버리고 全速力으로『칸트리호스피탈』로 運搬하엿다

日本飛行機라고
英國總領事館서發表

【上海二十六日發同盟】 英國總領事館午後九時發表 英國大使는陸軍武官 經濟顧問과同道하야 本日午後二時半頃自動車로 南京으로부터 上海로向하는途中 突然 何等警告도업시 日本飛行機는自動車에向하야 機銃의掃射를行하엿다 大使가搭乘한自動車와 大使의荷物을실은自動車는 卽時停車하엿든바 他의一機는 自動車에 爆彈을投下하엿다 兩自動車에는 유니온잭(英國旗)을 揭揚하엿섯고 그때大使는 背柱를負傷하야 上海『칸트리·호스피탈』에 收容되여잇다 主治醫師의말에依하면 背柱는切斷되지안엇고 重傷이나 危篤한狀態는안이다

同行二人은無事

【上海二十六日發同盟】 英國駐支大使휴겟센氏는 陸軍武官맛도·프레저— 經濟顧問휴바치氏를 同伴하야 今日南京으로부터 自動車로 來滬하는途中 道路上에서 飛行機의 機關銃掃射를맛나 大使는 流彈으로負傷하고 午後五時上海『칸트리·호스피탈』에 入院하엿다 他二氏는 無事하다

川越大使
事實調査에着手

【上海二十七日發同盟】 英國大使휴겟센氏의 遭難報를 接한川越大使는 大使館當局과 其他에事實調査를 命하야 그調査完了를 기다려 適宜한措置를 速히講究하기로되얏고 이와同時에 川越大使는『칸트리·호스피탈』에 使者를 派遣하고 또 岡本總領事는英國總領事館에 領事代理데빗든손氏를 訪問하야 各各慰問을行하얏다

我方飛行機의 故意射擊은夢想外
昨夜外務當局談發表

【東京電話同盟】 휴겟센駐支英國大使가我戰鬪區域에잇는 上海附近에서 奇禍를만낫다는 報道에 接하고 外務省에 昨二十六日午後九時半頃 本省에 堀內次官、石射東亞、東鄕歐亞、河相情報部長其他關係者가 參集하야 現地에서오는報告를中心으로 여러가지로 協議하엿는데 二十七日 午前○時半 河相情報部長談의 形式으로左의聲明을發表하엿다
河相情報部長談
昨二十六日午後 駐支英國大使휴겟센氏가 自動車로 南京으로부터 上海로赴하는 途中 上海에서 四、五十哩떠나잇는 地點에서 飛行機의 掃射로 重傷하엿다는 報道에 接하엿다 이는엇재든 不幸한突發事件으로 휴겟센大使에 對하야 外務大臣으로부터 川越大使에게 訓電하야 卽時 慰問케하엿거니와 上海에잇는 總領事도 데비드슨英國總領事代理를 訪問하고 慰問하엿다 我方에서는 本事件에對하야 目下現地에서 事實을 調査하는中이다 勿論我方의 飛行機가 故意로 英國의自動車를 射擊한다는것은 夢想조차할수업는일이다

長谷川司令長官
深厚慰問辭陳述

【上海廿六日發同盟】 長谷川○艦隊司令長官은 二十六日午後八時 英國支那艦隊司令長官리틀提督을 訪問하고 휴겟센大使奇禍事件에 對하야 深厚한慰問辭를述하엿다 英國側에서는 大使의自動車에發砲한飛行機가 日本軍所屬이라고 發表하엿슴으로 長谷川長官은 事件의眞相에對하야 麾下各部隊에 對하야 卽時調査하도록 嚴命하엿다

賠償要求는可能 復讐할權利는업다
英大使負傷과 某國際法學者見解

【倫敦二十六日發同盟】 휴겟센大使負傷事件은 全體的交戰區域에서 이러난事件이기때문에 其事件의 究明及處理에 對하여는 國際法學者間에도 異論이 잇스나 英國有數한 國際法學者某氏는 英國政府는 事件에 對하야 賠償을 要求할수는 잇스나 復仇行爲를 取할 權利는 업다고 結論하고 二十六日大要左의見解를 披瀝하엿다
一、國際法上의 處理는 事件發生當時에 엇서 휴겟센大使의行動如何에 잇는데 如何든 英國政府는 復仇行爲를 取할權利는 업다
一、英國政府는 他의 一般英國人民이 友好國으로부터 攻擊을 加한境遇와 同樣으로 賠償을 要求할수잇다 特히大使는 一國의元首를 代表하는地位에 잇슴에 鑑하야 要求될 賠償도 當然增加될것이다
以上이 自衛的事件으로서의 解決이나 이에反하야 휴겟센大使가 스사로 危險을冒하야 交戰區域에 入하엿다고하면 危險結果는自己가 負擔할것이다

廣田外相도 慰問電報

【東京電話同盟】 二十六日英國大使휴겟센大使가 上海에서 奇禍를맛낫다는報道에 接하고 廣田外相은 卽時 慰問電報를 發하엿다

휴大使、相當히重態

【上海二十六日發同盟】 휴겟센大使의負傷은 當初의 報道보다 重態라고

헐長官 英政府에慰問電

【華盛頓二十六日發同盟】 헐國務長官은 二十六日上海에서 휴겟센英國大使負傷報道를 接하자 卽時 英國政府에 個人의 資格으로 左와如히 懇篤한慰問電을 發送하엿다
余는 南京駐劄 英國大使휴겟센氏가 負傷하엿다는 不幸한 事件을 聞知하고 實로遺憾으로역인다 余는 大使의負傷이 最初의 報道에 傳하는것보담 意外로 輕하고 또一日이라도 速히 全快키를 衷心으로祈願하는바이다

英國民에衝動

【倫敦二十六日 福岡同盟特派員發】 南京駐在英國大使서·낫치블·휴겟센氏의 負傷報道는 二十六日倫敦夕刊各紙에 大大的으로揭載되며 街頭에서도 呼聲의빼러로 到處에서 注目을 끌고잇다 日本軍飛行機가 故意로 휴겟센大使의 自動車를 射擊햇스리라고 大使가 노누구나 생각지안코 日支交戰區域에 無警告로 乘入한點에 不幸의 原因이 潛在하는 것은 누구나 認하는일이나 惡情的으로 對日空氣의 惡化는免치못할것이다 但英國外務省과日本大使館에는 아직公報가업고 兩者間에는 아직何等의 往來가업는데 沈默을직히고잇다 吉田大使는 右에對하야 東京政府에 照會를 發하얏다

海軍省當局談

【東京電話同盟】 海軍當局은 左의 ...

支那側虛報過信이 英大使의上海入?

【上海二十六日發同盟】 휴겟센英大使의 負傷事件은 各方面을驚愕케하게하엿거니와 官邊은 英大使가 南京으로부터 戰線을突破하야 來滬함은 當局의 通知를接하지 안엇고 事件發生後도 아직何等 公式報告에 接하지안엇스나 英大使一行의 自動車는 적은英國國旗를 揭揚하엿슬뿐이고 또事前에 我方에對하야 何等通告를 하지안엇것은 英國側도 이를認 ...

英國支那艦隊司令長官에 ...

現地方面帝國海軍指揮官은 急先英國支那艦隊司令長官에 對하야 慰問하고 事情을 調査하는中이다

事件發生의主原因
長谷川司令官의慰問에對하야
英司令官릿틀提督談

【上海二十七日發同盟】 長谷川司令官은 午前九時英國旗艦칼릴런號로 英國支那艦隊司令長官릿틀提督을訪問하고 二十六日 휴겟센大使의 奇禍에 對하야 鄭重한慰問辭를述하엿다 이에 對하야 릿틀提督은 日本側의 深厚한慰問을 고맙게생각하고 昨日 大使의 負傷은 全然交戰區域을 미리 日本側에 通報하지안코 自動車로 通行한데서 생긴것이다 自己가 今回 不得已한結果로 생긴것 難으로 생각하야 日本側의 慰問에 深謝하얏다

英各紙
事件迅速解決期待

【倫敦二十六日 福岡同盟特派員發】 南京駐劄英國大使서·낫치블·휴겟센氏의 負傷事件에 對하야 二十六日 倫敦各紙는 大使의身分 重要性에 鑑하야 모다特大題目으로 報道하고잇다 日本軍飛行機의 射擊이 故意가아님은 一般으로認定되엇스나 그럼에도不拘하고 各紙는『掃射』는 辯解의餘地가업다는하야 消滅한態度를示하고잇다 各紙는모다 事件의迅速한解決을 期待하고 日本政府가 公正迅速한 謝罪에 나갈을 要望하는데 一致되여잇다 廣田外相의 慰問電報를 各紙모다 非常한好意으로써 接하야 크게揭載하고잇다

英大使遭難事件
英態度極히愼重

【倫敦二十六日發同盟】 이는外相代理英國政府首班은 휴겟센大使의 負傷事件을 자못重視하야 目下 스코틀랜드別莊에잇는 首相 및 사이몬蔵相 ... 六日夜 英國皇帝陛下와 協議중에 在... 휴겟센大使의容態에 對한情報를 極히 愼重한 態度를取하야 十六日夕刻中間的 콤뮤니케를 發表하는以外에는 消息通의 意見에依하면 消極的言明을 避하나 ...

深甚한憂慮不禁 適當한對策講究
英政府콤뮤니케發表

【倫敦二十六日午後六時半發同盟】 英國政府는 휴겟센大使의負傷事件에 對한 左의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英國政府는 南京駐劄휴겟센大使의 負傷報道를 接受하고 深甚한 憂慮를 不禁하는바이다 英國政府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휴겟센大使는 英國國旗를揭한自動車로 旅行中 二十六日午後二時半頃 日本軍飛行機二臺로부터 機關銃掃射를받고다 大使는 자못重傷을입고 上海病院에 收容되엿는데 同乘하엿든 陸軍武官及 財政顧問은多幸히 負傷치안은模樣이다 政府는 더욱詳報의打電을 訓令하엿는데 詳報가 到着되는대로 日本政府에對하야 適當한 行動을取하게될것이다
【사진은 英首相】

001691

外國船도搜査하려면 正式으로宣戰하라
我海軍支那沿海遮斷에對한 佛蘭西官邊側의觀測

【巴黎二十六日發同盟】 日本海軍의 支那沿岸航行遮斷聲明은 佛國官邊에서 지못重視하고 今後發展如何에 依해서는 相當히 큰國際的反響을 惹起할 可能性이 잇다고보고잇다 二十六日하바스通信의 報道에 依하면 佛國政府의 意向은 日本軍警察權을 行使하야 支那船舶에 對하야 同樣의權利를主張하면 問題가 어려울것이 別로 異論이업스나 支那以外의 外國船舶에 對하야 搜査할것이다 萬若日本이 外國船舶의 搜査를行할必要가 잇다고하면 日本은正式으로 宣戰을布告하고 國際法에依하야 實行할것이라고한다

上海戰線 東部及北部로

【上海二十七日發同盟】 我陸軍의 上陸以來 戰局의 中心은 上海東部及北部方面으로 移行한模樣인데 昨日早朝 其方面一帶에 亘하야 銃砲聲이 盛히 이러나激戰이 進展되는模樣이다

防空法도 어實施

【東京電話同盟】 內務省에서 明年四月施行할 豫定을 다거서來 ...
十月一日부터 防空法을 實施하기로 決定하엿스므로 目下施行 勅令의 立案에 着手하야 本省과 地方廳의 機構整備 防空計畫의 設定等 諸般 準備에 忙殺되여잇는데 當面한 重要經費로서 總額百七十萬圓을 今年度 追加豫算으로서 計上하야 議會에 提出하기로되엿다 即防空法實施에 萬全을 期하는 擧急 防空法實施計畫의大綱은 左와如하다
一、全國을東部 中部 西部의 防空地區로分하야 防空計畫의 設定 防空訓練의指導統制 防空思想의普及을圖함
一、新空襲의來襲에對한 各種情勢를 探知하는同時에 防衛할 都市의狀況을 調査整理할것
一、警報의迅速、監視哨의配置
成、通信系統의整備
一、燈火管制의實施
一、防空에必要한 土木建築物의 整備 防害化學의研究

日支紛爭에關聯 米政府重要協議
事態進展을繼續注視키로決定
沿海遮斷問題檢討

【華盛頓二十六日發同盟】 루스벨트大統領은 二十六日午後 白堊館에서 定例會議를 開催하고 極東情勢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席上에서 헐國務長官은 最近의 情況을 說明하고 日支紛爭全般에 亘하야 意見을 交換한結果 米國政府는 如前히 形勢를 注視하는態度를 取하기로 決定한 模樣이다 二十六日 當局의 閣議는 常上에서 헐長官은 會議에 압서 現在極東部顧問 홈벡博士와 數次協議를 遂하고 다시 支那沿岸航行遮斷에 對하야 國際法의 見地에서 檢討를 하엿다하다

日本側에不通報 事件發生의主原因

定한다고하다 그리고 英大使一行이 何故로 危險한交戰地區內를 上海를 둘어갈려 突破하야 上海로 ... 한 支那側의 無責任한 虛報를 過信한 結果인 ... 고하엿는지 그動機에 關하야는 아직 明白하지못하나 戰況에關 ... 一般은 諒解하고잇다

天津稅金徵收에 日貨通用

【天津二十七日發同盟】 皇軍의北支出動에 伴하야 日本貨幣의流通은 激增히 增加하야 天津金來 ...

支那軍事最高部 頹勢挽回를窺視

【上海二十七日發同盟】 二十六日 上海戰線은 全線에亘하야 大概로 小康하야 我에十倍나되는大軍을 가지고도 支那軍은 破滅的軍事行動을 取하지안코 最前線部隊의 損害를받는 指揮者의交替 補充整備와 行할뿐으로 日本軍에對抗等을 그리고 抗日元老인 張發奎로하여금各師長間의 連絡에 當케하야 軍容再建과 頹勢를 挽回할 機會를 엿보게하고잇다 ... 의 支那軍의 統制와 士氣奮發에 對하야 支那最高軍事當局은 一部에 輸送하는 蔣介石의 前線視察說이 傳하는 것도 其表現의 하나이다 그리고 抗日元老인 ...
... 我居留民側과 및 婦女童 民團別 特別法規)의 稅金徵收에는 今日부터 日本金·佛貨에 ... 는 銀元弗에對하야 金百五圓이 ... 毎日公定하기로되여 그리고 ...

日高參事官 上海로向發

【東京電話同盟】 日高駐支大使館參事官은 南京脫出後外務省臨部와 事務를協議하기爲하야 滯京中이든바 二十六日午後三時東京驛發任地上海로向하엿다

西班牙革命軍 산탄델市에入城

【살라망가二十六日發同盟】 西班牙革命軍은 六月十九日 빌바오陷落以來 그西方五十粁政府軍의 要衝산탄델市로向하야 猛攻擊을繼續하고잇더니 激戰二個月後 二十六日마친내 이를陷落하고 革命軍先頭部隊는 堂堂히 산탄델市에入城하엿다

政務多忙으로 總監議會出席中止

來九月三日부터 召集되는 臨時議會에 政府委員으로서 出席하기爲하야 今月末東上豫定이엇든大野政務總監은 時局重大한이때 內外 政務多忙하야 東上을中止하기로決定하고 議會에서의 朝鮮關係事項의 答辯에 關하야 는林財務局長으로 이에當케하기로되엿다

人事·集會

◀林財務局長 臨時議會出席次二十九日午後二時四十分 京城驛發渡東豫定
◀白南璡氏(同文記人)同上
◀愼鏞頊氏(愼航空事業社代表)新任人事次來社

八面鋒

◇初等學校 增加計畫、十個年에서 五個年으로短縮計畫。
◇이에必要한經費를 明年度豫算에 請求하리라하니 반가운소리이나 結果如何가 注目處。
◇北支方面의 鮮人保護指導費로 二十萬圓을 要求。
◇巨額의 金額보다도 運用의 效果가問題。
◇培材陸上軍 優勝의 優勝旗를先頭로 凱旋。
◇光輝잇는 戰績을 쌓인 功勞도 크지만은 오늘의 勝利를 永久히 確保할責任도 크다。

男子는鐵이아니다
夏瘦에는精力最新强壯劑 에限함무엇보다도日常生活에업서서는안될 醫學博士中井先生創製의호루모—제、藥代 十日分四圓八十錢 廿日分九圓 一個月分十三圓 註文은 葉書로申込하시면 누구에게나 代引으로送呈、一部一個所 特約店募集
東京市向島區東主ノ一六
國際ホルモン研究所
振替東京一五一九四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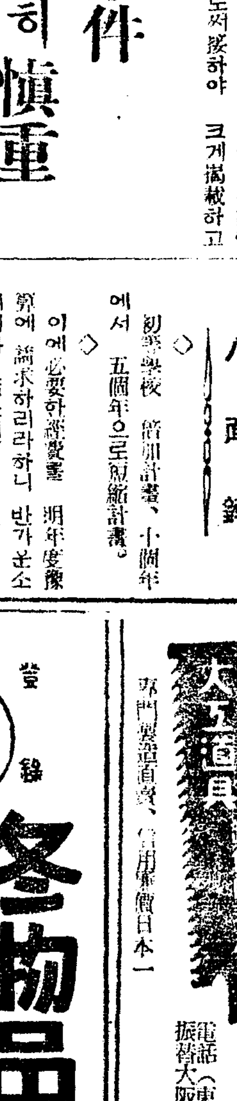
●朝鮮의裁縫을機械化하야大發明하엿다
裁縫ミシン
△七세의 小兒라도 能히使用할수잇다

아모리서투른사람이라도 어린아해나 로인이나 곡히간단하야 서투르지안코 자미잇게바누질할수잇는 朝鮮裁縫미싱이다
使用이容易한것은 아이들을프로、밀기만하면 재절로 바어지며 明細나 羅紗가튼것도 마음대로完全하게 쓰는것과 조금도 다름이업스며 보기조코 받으자리가 무명이나 받을수잇다
大特賣 (送料共)(一臺代金) 三圓八十錢
名古屋市西區傳馬町三丁目
製造元 東西商事社
電話本局七八番·四五二六番
【特約店大募集】

◎◎◎◎◎◎

勞動 セーラー 乘馬ズボン 製造卸
洋服各種
其他鑛物、小倉服、鑛物
(商店에限하야發送함)(見本相談應함)
大阪市東區平野町二丁目一〇番地
合名會社 若原重商店

木手道具、理髮器械、金物一般
專門製造直賣 信用第一 價日本一



大阪市東區神崎町四一
武村製作所
電話(東)一七八五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番

登錄商標
冬物品揃
小兒服
毛糸服各種
梨木商店見本、店內見本陳列
專門卸問屋
合名會社 梨木商店
大阪市東區北久太郞町心才橋筋

大阪帝大醫學博士 ... 大阪病院長 高木타마리 發見創製
문등病新治療劑
▲注射와內服錠劑 허로노코ー루
創作用絶無 文獻進呈
▲本病이여태까지不治된理由
古來本病에對하야는 世界를通하야 大楓油事外에는 藥이업섯다 그리고 其大楓子油도 極히僅少한有効成分과 極히大量의無効有害成分으로된關係上 充分한奏効는 바랄수업슴으로 本病이不治의病이라는것은 이런根本理由가잇섯다。
▲本病은발서難病이아닌理由
前記理由로大楓子中에서 有効成分을取하고 無効成分을 除去하게되엿슴으로 비로소 그目的을 完成한것이다。
△當研究所의자랑과其使命
米國政府直轄下에서 대원博士는 그것을 製藥하고 하와이國立癩病院에서 多數患者를 全治退院시키고잇다. 日本에서는 當研究所에서 鑑製하야 널리 薄命한同胞에이것을提供한다。
定價 注射 一〇〇瓦 金十圓以上 內服 九〇〇錠 金九圓以上
發賣元 大阪市北區天神橋六丁目一 天六病院附屬
高木化學製藥部
電話堀川 一六〇五番
振替大阪 五五六三四番

雨順風調!

最成熟期에든五穀 空前의大豊豫想

中部中心·知時雨!

우순풍조하야 풍전의 대풍이 예상되고잇는터에 팔월중순이후 각종농작물의 최생육기(最生育期)에 들어서 비가부족하야 다소 념려되고잇든농 최근수삼일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업마큼 내리어 농가에서는 때마추어 내린비를 갈속하는소래가놉다 농작물은 벼를위시하야 지금까지 수해도한해도 별로 크게본것이 업고 그외의 전곡물도 피해가 업시 순조로히성장하야 곡류 조(粟) 면화(棉花) 등이 모두 전에업는호성적을보이고잇서 가는곳마다 풍작의소래가 놉핫스나 팔월달에들어서 비교적 비가적고 날이너머 더운관계로 처처에서 비를 기다리고 잇섯다 그중에도 채소류에는 비가더필요하엿섯는데 때마침수일래로 비가 내리어 농촌에는 다시금 풍작의 개가가 울렷다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십칠일 오전륙시 현재로보면 아래와 갓다

	二十六日	二十七日
新義州	一三	一
平壤	一六	一
仁川	三三	一
京城	一四	三
中江鎭	一四	一〇
城津	四	六
雄基	五	五
元山	一	降雨中
江陵	一	一五

이것으로보면 그리만치도 안흐나 전라도방면만은 비가업서만히 기다리는터이다

지금까지의 농황을 전반적으로 관찰한 총독부농무과당국자의 말을들으면 다음과갓다

변동이란것은 추수를하기까지는 단언키 힘드나지금까지로보면 어느농작물을물론하고 대풍이다 수해도한해도업섯는데 충해(蟲害)도지금 가레서는념려업슬것갓다 그리유는오곡이 이미 대부분 성육하여일부로 성숙기에들어가려는때임으로 충해가잇다하여도 피해가클것은업슬것이다 따라서 지금형세로는 풍작은거의 결정적 이리고 볼수도잇는데 아프로 소위이백이십일(二百二十日)의 구월중순의 폭풍우가 어떨런지그것만이 념려이다

天災、病虫害도極少 今年米作은"良好"

近一割의增收를豫想

八月十五日現在水稻作況農林局發表

팔월십오일 현재각도의수도작황(水稻作況)에 대하야이십일일총독부 농림국에서 발표한바에의하면 다음과갓다

봄이래의 일기는 봄부터 전조선적으로 상당히비가 왓기때문에 묘판(苗板)의생육도충분하여 파종(播種)도순조로웟다 파종후일시다소날이 서늘하엿스나 그후천후가회복되여 묘의생육이량호하엿다 또본년은 일후봄부터 저수(貯水)가 충분하엿기때문에 아즉부터 묘를심으게 되것이비교적만헛고 그러고 륙월하순에 이르러전조선적으로 자우(慈雨)가와서 경남북 전남의일부를제하고는 대개 적당한 제시기에묘를모다 심을수가잇섯는데 그후에는 잘 조정기도하엿고 때를마추어 비도오고 일반적으로 생육이순조로웟다 그중에칠월하순에 이르러 평안북도의일부에 수해가잇섯고 남조선의천수답(天水畓)지대에 용수가부족해진 지방이잇스나 모다피해는 적은정도이다 그외에 도열병(稻熱病)이며 해충(害虫)의 피해도 전조선을통하여 극히적어서 현재상태로보면 작항은대체로보아 량호하다 각도별로보면

▲京畿道 良 ▲忠北道 良 ▲忠南道 稍良 ▲全北道 稍良 ▲全南道 普通 ▲慶北道 稍良 ▲慶南道 稍良 ▲黃海道 稍良 ▲平南道 良 ▲平北道 普通 ▲江原道 良 ▲咸南道 稍良 ▲咸北道 良

그러고 이작항은 전오개년간의 중용의상태를 기준으로하고 결정한것인데 그표준을 설명하면

▲良은일할(一割)이상의 증수를볼만한경우 ▲稍良은 삼부(三分)이상 일할미만의 증수를 볼만한경우 ▲普通은 증수나감수가 잇다해도 삼부미만일경우

이로보면 전부가 보통이상량호한편으로 평년작이상의 풍년이될것은물론 일할가가운 증수를 보리라는관측이다

京安川增水로 京江道路交通杜絕

廣州署에서警戒中

이십칠일아침 광주(廣州)경찰서장으로부터 경기도경찰부보안과에 들어온보고를보면 이십륙일밤부터 쏘다지는 호우로말미암아 경강(京江)이등도로를 횡단하는 경안천(京安川)의 물이 핑장히 불어서 경안교(京安橋)우로 약두자가량이나 넘을뿐외라 그다리서쪽 선로로면이 소저하되야 물이상당히 빨른속력으로내려감으로 자동차와 및인마의 교통은 전연두절된상태임으로 광주경찰서에서는 곳그근처부락사람을 출동식혀 극력경안교를 경계하는중인데 지금도 물은계속하야 점점붓는중이라한다

水害救濟金

本社取扱分

▲金二圓 慶北新寧 李鍾贊▲金二十一圓三十五錢 永登浦文局經由▲金十圓 宜寧邑西洞 李月光▲金五圓 京城明治町二丁目四八 李孝源▲金二十錢 通川郡海南公普 金鳳經▲金四圓三十五錢 木浦竹

一、現品 가、金釵一本 나、金製耳搔一本 다、金製指環一個 右見積換算金 一百九十四圓

一、現金二十六圓

◇累計

一、現品 가、金釵十四本 나、銀釵一本 다、金製耳搔三本 라、金製指環三個 마、白金製指環一個 右見積換算金 一千六百五十七圓

二、現金一千六百九十一圓

一圓 朴谷卿 ◇今日計

國防獻金還至

本社取扱分

▲五十圓 豐川高斗熙▲十圓 明川郡花台市婦人會▲四圓九十錢 金海郡下東面草亭里羅幕婦人會

▲東大門署接受分

一金百圓 明倫町二丁目四一 京城工業社長 劉永綬氏

一金七十六圓 同社員一同

▲鍾路署接受分

一金百圓 樂園町一六五 柳興俊氏

一個 金鐘完夫人 十圓 閔熙植夫人 十圓 金秋鳳 一圓 韓姬命 一圓 鄭嬉膺 一圓 黃仁京 一圓 文南植 一圓 張柔根 一

愛國金釵會 獻金者名簿

【二十六日分】

金釵一本 金耳搔一本 金指環

各道關係者召集

軍事扶助의徹底에 來三十日總督府에서

총독부사회과에서는 시국에관한 군사부조사무의 만전을 기하기위하야 오는삼십일 오전여덟시부터 총독부제이회의실에각도군사부조사무담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의사항에 대하야 협의키로 되엿다

一、出動又는 應召軍人의 家庭狀況의調査
二、軍事扶助의周知徹底
三、軍事扶助法에依한扶助
四、軍事後援團體等에依한扶助
五、出動又는 應召軍人과 그家族遺族의 職業保持及斡旋
六、軍事後援聯盟에關한事項

滿洲人民會

創立總會開催·成立

경성에 와잇는 만주국사람들은 얼마전부터 만주국명예총령사관(名譽總領事館)과도 협의를 거듭하야 경성재류만주인민회(滿洲人民會) 창립을 계획중이든바 드되여 이십칠일 오전열한시부터 서소문정(西小門町)이번지 동화루(同華樓)에서 창립총회를열엇다 명예총령사관원을 비롯하야 만주국인 약오십명이 출석하야 일만량국의 만세를 부르고 성황리에 산회하엿는데 중국인으로서 동민회에 들랴는자도잇서 명예총령사관에서는 만주국정부와 타합하야 조토록 처리하기로되엿다

總督府圖書館三日間休館

부내남대문통이정목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는 장서를해빛에쏘이는 동시에 점검(點檢)하기위하야 이십구일부터삼십일일까지 사흘동안 림시휴관을한다

咸州下岐川郵便所 電信電話事務開始

체신국(遞信局)에서는 그간함남함주군하기천면상통(咸州郡下岐川面上通)우편소에 전신사무와 밋전화통화사무를 취급식히고저 공사중이든바 요사이거의공사가 끗낫슴으로 이십팔일부터 드되여 전신전화사무를개시키로되엿다한다

호떡장사가 獨學으로辯護士

첫시험에무난히합격된 光州 李德宇君(三七)

【光州】이번에조선변호사시험합격자발표중에 조선사람일곱명가운데 『호떡장사』를하여가며 독학으로 당당히 변호사시험에 합격되사람이잇다

그는리덕우(李德宇)(三七)라는청년으로 본적을전남화순(和順)군에다두고 광주사범학교(光州師範學校)삼학년까지다니다가 생활관으로 한분밧게업는모친을모시고 광주부명치정(光州府明治町)오정목에서 『호떡장사』를하며독학을하여온일도잇스며시게점외교원가정교사등을하야그와가티최초의시험에합격되엿다 리군은 합격된기쁨을 다음과가티 말한다

『내가 평소에바라든오늘의성취는 오내직 어머님의 간절하신지성과 아울러 선배제씨및 여러친우들의원조로·생각하며 이번첫시험에 합격되것은뜻밧게일이올시다』

(사진은리덕우군)

앙큼한童妓

포주(抱主)의 학대로 주인의 의복귀금속을 훔처서 주인하야가지고 자기의 전차금을 갈흔동기(童妓)가 본정서에붓잡혓다

복도현(福島縣)출생으로 부내욱정(旭町)일정목일백이십륙번지 취출(吹出)에 예기로잇는 호택무자(戶澤武子)(一五)는 버리가조치못하야 주인의학대가 자심함으로 지난륙월십구일 경대속에 들엇든 십팔금뒤꼬지를 훔처서 전당잡혀 주인에게전차금을 가픈것을 비롯하야전후일곱건 약삼백오십원어치를훔쳐서 선차금을정산하고 신의주(新義州)로가 잇더가 본정서원에게 탐지되여 이십오일고서로 어서실이 붓잡혀왓다고한다

▲金一圓 公州能仁學校二四學年生徒▲金十圓 京城崇仁町七二의八〇 白巳培▲金五圓 鳳山郡舍人面 ▲金二十圓 京城 ▲金一圓 ... 計九十二圓三十三錢

不渡小切手로 豪遊하는怪紳士

鍾路通一帶에出沒이頻頻

被害額만數千圓!

얼마전부터 주로종로서관내에잇는 요리점 카페—등에는 부도소절수(不渡小切手)를 사용하야 호유를거듭할뿐아니라 다액의거스름돈까지 바더가는 괴사기한이 출몰하야 그피해가 수천원에달하고잇다 지난십삼일오후세시경 관철정(貫鐵町)카페—락원장(樂園莊)에는 삼십전후의신사두사람이나타나 이십원의음식을먹고 맥면구십원의 동일은행관훈동지점(東一銀行寬勳洞支店)소절수를 내노코 거스름돈십원을 바더갓스며 나흘전에는그상점에서 이십륙원의 음식갑세사십원짜리 소절수를밧고십사원을 거슬러준것까지 전부부도가되여비로소 사기당한것을알고 소관종로서에 계출하엿든것이다 종로서에서는 그수법으로보아 동일범의 소행인동시에 피해가 한두건에곳치지안흘것으로 단정하고 피해자조사를 한결과 요리점으로는 천향원(天香園)을비롯하야 대부분이 그피해에 걸려금액으로 수천원의 거액에달하고잇는것이판명되여 동서에서는 대당한 괴사기한을 극력엄탐중이다

警察官中에 轉職者續出

財界好況等이原因

當局은防止에腐心

방대예산 꼭가고등『임푸레경기』등이 비저내는 재계호황으로 순사의실업계진출자가 속출하야 다사다단한 현하조선경찰계에 적지안흔 파문을이르키고잇다

총독부경무국에서는 약진조선의 다사다단한것은 물론이어니와 전시체제에 잇는 현하시국으로 경찰사무가 비상히다망한이때 경찰관이 일신의안락만생각하고 전직한다는것은 경찰관본분이아니라하야 무고사직자가나오지안키를 희망하는견지에서 각도지사에게통첩을 발할터이라한다

伊藤警務課長談

이에대하야 경무국이등경무과장(伊藤警務課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최근 호경기관계이지 순사들의사직자가 평소에비하야 상당히만흔것은 사실이다 다사다단한 비상시국에 제일선의 치안경찰에 봉직하는 순사가자기일신의 안일만 생각하고 사직한다는것은 최초경찰관될때의 각오와는 전연배치되는 정신일뿐아니라 대국적책임과 의무를 모르는 일이다 총독부로서는 되도록 이비상시국에 사직자가 나오지안키를 간절히 희망하는바 이다 사직자로하야 생기는결원을 보충하고자 얼마전부터각도순사교습소의 교습생모집을 증원하는동시에 다소사직자가잇드래도 넉넉히보충할수는잇스나 지금까지재직하야 경험을가지고잇는 순사들이 국가봉공을위하야 더욱분투하야주기를바란다 호경기로 전직한다고하나 실상은순사를 그만두고 장사로성공만한 그럼호경기도못되는것이 사실인모양이다

三百五十萬圓 追加豫算提出

鐵道局、臨時議會에

철도국에서는 구월초에열리는 림시의회(臨時議會)에 약삼백오십만원의 추가예산(追加豫算)을 제출하기로되엿다한다

漢江에漂着屍

이십륙일 오전여섯시쯤에부내 이촌정(二村町)이백삼번지압 한강가에 흑신세가랑되여보이는조선사람의 시체가떠올랏는데 죽은지 오래된것은아니것갓다고하며신원을 알수업서 시체는검시한후 경성부청으로 인도하엿다고한다

同胞十六名拉去

大洋岔에合流匪襲來

【咸興】함남도경찰부에 들어온정보를보면 지난이십오일오전두시쯤 공비 최현(崔賢) 김일성(金日成) 급 조국안(曺國安)의 합체단 약팔십여명은 지난 이십오일 오전두시쯤 팔도구 대양차(八道溝大洋岔)를 습격하야 소맥(小麥)일석 기타 물품을 잇는대로 략탈한후에 또 조선인십칠명마주인 십륙명한섬십삼명의 다수를 랍치(拉致)하야 략탈한 물품을 운반시켜가지고 동네시경에 벽지로 돌아갓다

親友의不具를同情 兩女性"死"의出家

安養軍浦場間轢殺屍身元判明

【永登浦支局電話】이십륙일새벽 안양(安養)군포장(軍浦場)간의경부선철로를 피로물드린 두묘령녀성의 동성정사 사건은 작지에보도한바로 그후현장에 때려저잇는 보통학교 생도의공책한권이 의문의 자살사건을 풀게하얄쇠가되엿다

처음에발견된 여자는 부내금정(錦町)륙십륙번지 홍인식(洪仁植)의처 조홍순(趙興順)(二三)이고다음에 발견된편은 역시금정십구번지에사는김춘식(金春植)의장녀준이(俊伊)(二八)라고한다한사람은얼굴은지어미 또한사람은방년처녀 그들이 손을 잡고철륜(鐵輪)으로 뛰여들지 안흐면안되게된 리유는 무엇일가 홍순이는원정(元町)이정목우편소 사무원의처요 준이는 절름바리처녀 꿈만흔처녀 시절을번뇌속에 눈물짓고잇든 불구자다 이두여성은 삼년전부터 그들이거주하는 금정경성제사공장(鐘淵製絲工場)의녀직공으로 물레바퀴에감기는 실가닥은 한마음두녀성의 하소연이엿스며 홍순은준이를동생처럼사랑하얏스니 홍순의 남편이 숙직날이되여 집을비울때에는 홍순의 잡자리여페반드시 준이가 발견 되엿다한다 이상으로 두녀성이 죽엄의길을 취하게 까지된 환경은알수잇슬것이나 직접동기는 두사람만이 알고이슬 젊은여인의 비밀일것이다 이십오일 오후네시 준이가 그의조하인 모공보사변생의 양복을 사려나간다고하며 그소년의 공책한권을 들고나간채 이튼날 두여성은시체가되여 각각집으로 도라오게된것이라고한다

(사진은 상은김준이 하는 조홍순)

스포ー츠欄

職業拳鬪延期

金恩聲君(光山)對露人산소ー니君의 十回戰을『메인에벤트』로 한職業拳鬪戰은 二十八日午後八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할豫定이든바 燈火管制를 實施中임으로 不得已延期하기로되엿다는데 試合日字는 追後決定할터이라한다

講道館支部主催 柔道段外者戰

九月十九日에擧行

日本講道館朝鮮支部主催의 第十一回全朝鮮柔道團體段外者優勝戰은 來九月十九日午前十時부터 長谷川町 講道館文部道場에서 다음과가튼 規定아래 開催하기로 되엿다

▲參加資格‖全朝鮮의學校、道場、警察部、警察署、刑務所其他公私設道場等의 諸團體로서 永久性이잇는것을要함(但 其參加資格은 講道館朝鮮支部에서 決定함)

▲人員及選手‖人員은 各團體七名式、諸學校는生徒、官公署團體는勤務者、私設道場等은其團員으로서 平常其道場에 出入하는者에限함 選手는 講道館有段者、武德會有段者、朝鮮警察協會有段者以外者임을 要함

▲勝負方法‖紅白勝負點取法으로하되 講道館新審判規定에依함 逆技를禁함

▲參加申込期限‖來九月八日까지 主催側에 到達함을要함

天氣豫報

豫報 오늘밤은 흐렷다、개엿다하며 ·때때로 소낙비가나리다 明日도개다 京畿全區도同一

昨日最高 三〇度
同最低 二三度二
今朝最低 二一度五
今日正午 二〇度三

九月三日에 祈願祭擧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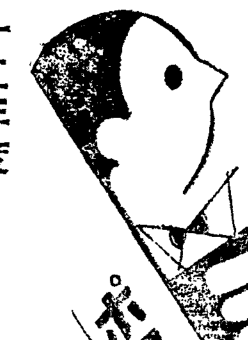
發起人을大量으로增員한 懇談會委員會開催

일지사변을계기로 조선사람사이에 일본정신(日本精神)에대한 인식이깁허가고잇슴을 더한층발양(發揚)시키며 일본국운의융창을 기원하기위하야 조선신궁에서는 부내에잇는 조선인측언론교육 종교각계지명인사를 지난이십삼일 그사무소(社務所)에초청하야 간담회를여럿다함은 기보한바이다 이모임의 제일회위원회는 예정과가티 이십칠일아침 열시부터 각위원이 동사무소에모혀 열리엿는데 그석상에서

◇오는구월삼일 오전아홉시부터 조선신궁에서 『國威宣揚武運長久祈願祭』를 성대히거행하기로함
◇발기인을 각계를망라하야 증원할 이로서 그총수는 백명이상에달한다
◇상해 북지장병에게 위문격려의전보를보내기로함

등을결의하고 동열두시 성황리에위원회를마치엿다

耳ガ聞ヘル コマク破れの耳も心配無用
完全人工コマク
辻商會補聽器部


頭髮の整美には ミツワがポマード 百パーセント
本舗 キスミー
十二年度 秋季有利特賣
南朝鮮總代理店 大邱府本町二丁目 合資會社 中村平商店化粧品部

恐ろしい程子が出來る 愛胎 子寶

堀商店

胃酸過多 百發百中

早水藥草研究園

銃後の寫眞 愛の 甘美
田中里 振替大阪一〇七二三〇番

淋疾
發賣元 笹虎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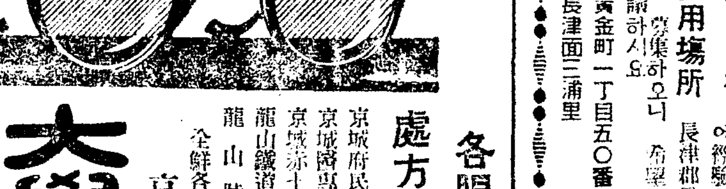
特約店募集 無代實物見本進呈 富士商會

手車 昭和十一年式大發明特許 감친자리업는軍手製造機械
本社大阪 阿倍商會 京城代理店

大田支局 電八四九番

國光アルコールアイロ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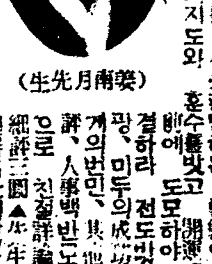
百聞不如一見
製作發賣元 京東 國光商事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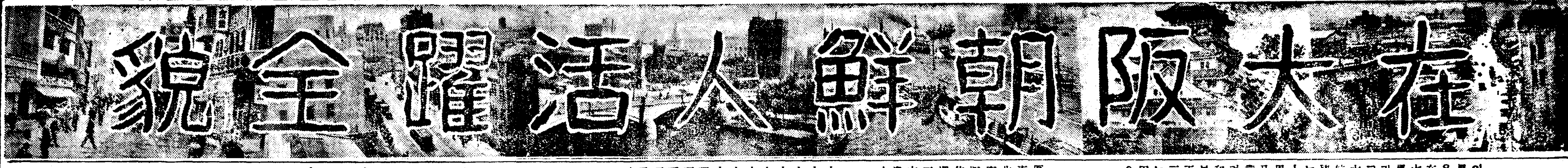

大學堂眼鏡店
各眼科病院 處方眼鏡責任調製
京城帝國大學御用
京城府本町二丁目

鑛夫大募集
一、募集人員 約五百名
一、資格 二十歲以上、身體健康、品行方正
一、採用場所 長津郡長津面三浦里
大同鑛業株式會社長津鑛業所

小資本經營
漢城藥舘本店 地方部

生徒募集 中央音樂學校 東京市下谷區眞島町

東洋唯一 觀相師

(姜南月先生)
그는果然어떠한才士인가
姜南月觀相所



在大阪朝鮮人活躍全貌

大阪紹介版發行에際하야

大阪總販賣所 朴永壽

東京이 日本의頭部라면 大阪은 日本의心臟部라는것은 누구를勿論하고 잘아는바이다 大阪은 北緯卅五度 東經百卅五度에 在하야 東에奈良縣 西에兵庫縣 大阪灣 南에和歌山 北에京都府를 境界로하고 一望無際한平野가 大阪灣을 向하야 展開되엿고 琵琶湖로부터 나리는淀川은 大阪中間을 貫流하야 漆濺 運繁에 만흔便宜를 돕고잇다 面積은 千八百十三萬坪四요 人口는 四百二十九萬七千餘人(昭和十一年末現在)을 包含하고잇는世界的大都市일뿐만안이라 商工業及對外貿易으로도 日本의中心地齊며 全東洋經濟界에 中樞地인것은 一般의共知하는바이며 昭和十一年度大阪府及大阪市財政을 본다하래도 大阪府豫算이 三千百五十六萬餘圓이요 大阪市만이 三億七百四十六萬一千餘圓이나되는 膨大한豫算으로 堺市 岸和田市 布施市 豐中市等 豫算을 合한다면 朝鮮全體의總豫算과 匹敵되리라고본다 이러한 經濟都市大阪府下에 現在朝鮮人이 거의 二十二萬五千의 數에 達하야 日本生産機構에 重要한存在가되어잇다 朝鮮人의居住關係는 他來雜과 其他事情에 依하야大部分은集團生活을하게되며 數十戶或은 百餘戶式密集하고잇스며 府下八尾竹淵村은 一百六十餘戶가 全部朝鮮人이 居住하야 한村落을 構成하고잇는現象이다 朝鮮人居住者各地域別的으로 본다면 東成區 四萬一千八百十五名을首位로 中河內郡 東淀川區 西成區 西淀川區 旭區等의 順位로 居住하는바 여기에는 各各 朝鮮市場이 設置되여 日常生活에 만흔便宜를 주고잇는中인대 現在 猪飼野 森町 今宮 本庄等地의朝鮮市場이 그의代表的일것이다 最初는 朝鮮人의 大部分이勞動者이엿스나 現在는 勞働者로서 工場主 商業家로 飛躍的活動을하야 赤手成家한사람들이多數가잇스며 大阪生産品中고무類 硝子眞珠 "낫도" 洋傘살가른生産品은 朝鮮人工場에서 多數産出한다고한다 이외가려 大阪地方에 數十萬의 朝鮮人이居住할때 까지는 遼遠한 歷史의過程을 밟바왓스며 大阪에 百濟村 高麗橋라는 地名이 有하니 이것을 보아서도 太古로부터 大阪은 朝鮮人과 密接한關係가 잇섯다는것을 잘알수잇다 그러나 三韓時代 百濟王仁博士가 渡來前後當時에는 不過數百의數에 達하지못하엿스나 時代의推移와 生活樣式의變遷은 必然 多量的으로 玄海灘을 건너오기가 始作되엿다 大正元年을 새紀元으로해보자 大正元年에는 二百四十八名 居住者가잇섯스나 大正三年에는 一時十二名이주러 二百三十六名이엿스며 그後로는 年年히 增加하야 十年後인 大正十年에는 七千四百二十一名 二十年을 지난昭和六年에는 九萬八千三十七名이되엿스며 다시五年後인 昭和十一年度現在는 一躍二十二萬四千七百四十九名이라고한다 各地域別的人口分布表와 職業別統計는 別項과갓거니와 渡航減少問題로或은 將來減數云云하는분도 잇스나 其實自然增加와 各府縣에서 別다른變動이 업는以上 第二의鄕里처럼 모여드는關係로 以後에도 年年多少의 增加의 數字를 示現하리라고 본다 朝鮮人의 各部門의 狀況을大略的으로 씃다면다음과갓다。

教育 十一年末現在 府內朝鮮人小學生은 一萬九千三百六十九名 中學以上及 專門學生이一千十七名이라는바 中學以上의學生의 七割이 苦學生이라고한다 朝鮮兒童만 主로 教養하는機關으로는 會前 東光、新興、東明共鳴、共濟學院外 一時는 近十餘個所가 잇섯스나 周圍의 事情과 經營難으로 다업서지고只今에는 東成區 東小橋北元町에잇는 櫻花幼稚園과 耶蘇教團에서 經營하는 猪飼野町 東部幼稚園 大仁本町 親林幼稚園이잇고 大阪府協和會事業으로 今宮 長柄 今福 鶴橋 泉尾 中川、等地에保育園이 잇스며 未就學兒童들은 夜學에도 만히다니나 朝鮮兒童만을爲하야 朝鮮語讀本까지 가라치는곳은 今宮第四小學校夜學部뿐이 라고한다

團體運動 過去한때는 在日本勞働總同盟大阪聯合會 各職業別細胞團體도잇섯고 또는新幹會支部 大同 極愛 우리 東大阪消費組合 東亞通航組合이며 地方[illegible]團體가 잇섯스나 時代의變遷에따라 解消 解散等으로 거이다업서젓스며 다만西成에勞働團體로 阪南勞働者自助會가잇다고하나 其亦是看板조차 차즐수업슴으로 有名無實로 되여잇고 오즉朝鮮人藥種商百七十餘名들이 加入한 大阪府公認 朝鮮藥業組合이라는 商業團體가 잇슬뿐이며 數年前부터 大阪府內鮮協和會가 主體가되여 朝鮮人多數居住地帶에 矯風會를 組織하고 教和事業에 힘쓰고잇다 體育團體도 한때는 全盛하야 府內에 三十餘個의 蹴球團體가잇섯스나 看板조차 보히지아니하며 年中行事로 되여잇던 蹴球大會조차 年來에는 보이지아니하여 寂寞한感이 업지안타 全大阪職業學園選手中에는 三分之二以上이朝鮮人이라하나 오즉道場으로서는 東成區東小橋南之町에 東西拳鬪協會가잇슬뿐이며 專屬 陸上에 一流選手들이 잇스나 아직은 陸上競技團體로는 업다

宗教 朝鮮사람이 늘어갈사록 各宗教宗派도 만히와서 布教하고잇스나 主로 耶蘇教와佛教徒가 만흐며 天主教 天道教 安息教等도잇다 朝鮮基督教會에서는 十一個所의教會가잇고 朝鮮人教師가三人 信者가二千餘名이나되며 教會內에서는 男女絶勵靑年會가잇고 나날이教徒가늘어가는現狀이며 佛教는 年前까지도 朝鮮佛教會 布教하여오던바 信徒도 千餘名이엿스나 近者에는 日本眞宗 眞言宗及他宗으로轉宗하고 看板만은 朝鮮佛教所라고못치엿스나 其實朝鮮佛教派는 아마 大阪에는 그림자조차업서진듯하다

以上各部門의 狀況은 略記하엿스나 勞賃의指數와 生活狀을 좀더 數字的으로 들지못한것을遺憾으로 生覺하나 今後機會를 어더 다시쓰기로하고 擱筆한다

在大阪朝鮮人各區別人數表(昭和十一年末現在)

區域	居住者數	區域	居住者數	區域	居住者數
東區	三·四四	西區	八六七	南區	三·二四七
北區	八·三〇〇	此花區	一〇·八七七	港區	一二·〇六四
東淀川區	一八·五九二	西淀川區	一二·三五五	東成區	四一·八一五
西成區	一四·一八六	旭區	一三·一一五	浪速區	一〇·九七七
住吉區	六·三二八	天王寺區	一二·七一六	大正區	一二·六〇六
堺市	八·一〇八	岸和田市	八〇七	豐中市	一·二五一
三島郡	五·二五七	豐能郡	一二·六八三	南河內郡	二·九六八
中河內郡	一八·七七八	北河內郡	一三·〇〇六	泉北郡	五·二六九
泉南郡	五·〇一九	水上生活者	四四四	累計	二二四·七四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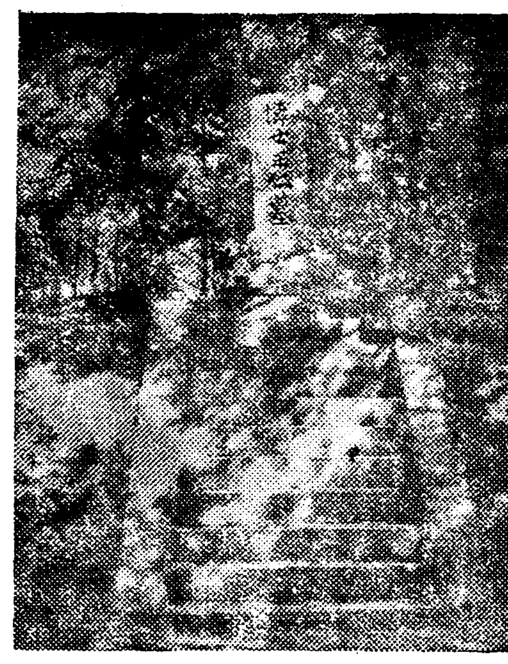
在大阪朝鮮人數累年表

年次	男	女	計	年次	男	女	計
大正元年	二四六	二	二四八	大正二年	三一四	二四	三三八
大正三年	二二二	一四	二三六	大正四年	三九七	二	三九九
大正五年	七四九	二二	七七一	大正六年	二·〇三〇	二〇五	二·二三五
大正七年	三·〇五二	二四五	三·二九七	大正八年	三·五一六	四三五	三·九五一
大正九年	三·八七三	六二八	四·五〇一	大正十年	六·一六八	一·二五三	七·四二一
大正十一年	一一·三二七	二·一〇〇	一三·四二七	大正十二年	一九·五四九	四·〇八六	二三·六三五
大正十三年	二〇·一〇二	六·九四四	二七·〇四六	大正十四年	二五·七九五	六·〇三五	三一·八三〇
大正十五年	二六·九四四	八·三三五	三五·二七九	昭和二年	三一·二五九	九·六七一	四〇·九三〇
昭和三年	四〇·一八七	一〇·〇二二	五〇·二〇九	昭和四年	四八·五三〇	一九·四三六	六七·九六六
昭和五年	六一·五七五	二七·四六二	八九·〇三七	昭和六年	六五·五七五	三二·四六二	九八·〇三七
昭和七年	七八·七五五	三五·四七一	[illegible]	昭和八年	九一·八八七	四八·六九〇	一四〇·二七七
昭和九年	一〇六·五二四	六四·六三六	一七一·一六〇	昭和十年	一二一·四〇〇	八〇·九二一	二〇二·三二一
昭和十一年	一三三·八〇六	九〇·九四三	二二四·七四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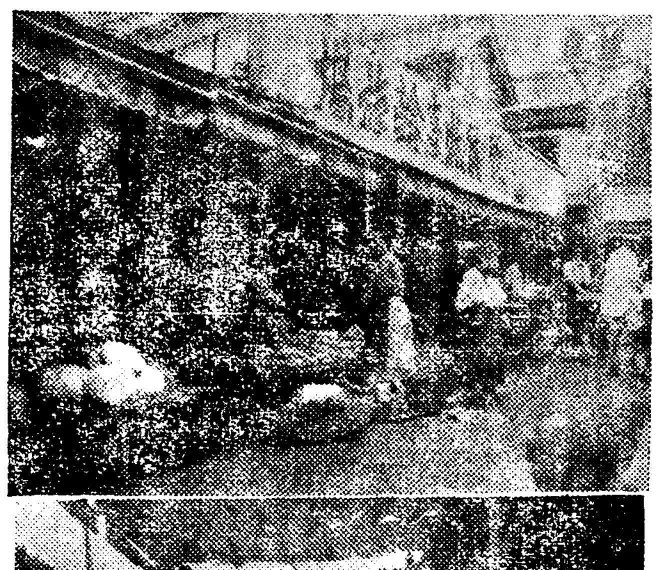
在大阪朝鮮人職業別(昭和十年末現在)

職業別		男	女	計
有識的職業	官公吏	五	—	五
	軍人	—	—	—
	諸學校教師	[illegible]	—	[illegible]
	牧師僧侶	六	[illegible]	[illegible]
	醫師辯護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記者著述家藝術家	[illegible]	—	[illegible]
	事務員	[illegible]	七	[illegible]
	其他有識的職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業	普通商人	一·九二一	[illegible]	[illegible]
	人蔘販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菓子類販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雜品販賣	一·二七四	[illegible]	[illegible]
	屑買其他雜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露店及行商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農業	自作農	一	—	一
	小作農	[illegible]	五	[illegible]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漁業		一	—	一
鑛業	坑內勞働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坑外勞働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工業(纖維工業)	紡績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織物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製絲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染色加工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纖維工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工業	金屬及機械工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護謨工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硝子工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化學工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電氣工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版工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食料品製造工業(職工、雜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土木建築業	土工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通信	通信勞働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鐵道軌道從業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運輸業	自動車運轉手助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般使用人	仲介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店員丁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農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漁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家事其他使用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勞働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接客業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ノ有業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學生生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學兒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在監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無職	世帶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世帶從屬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一二一·四〇〇	八〇·九二一	二〇二·三二一

◎注意 學生生徒及小學兒童은 無職中에 包含치아함



寫眞은 府下北河內郡菅原村字藤坂伏字 奧山王仁博士墓碑



寫眞上은 猪飼野 下는森町朝鮮市場全景

塗裝業界의名匠

木村塗裝工業所主 李鍾澤 氏

氏는 京城出生으로 普成高普를맛치고 養英學校에서 七年동안이나 教鞭을잡고 育英事業에 힘쓴바이엇스며 大阪에 건너온後로 數年의苦生을무릅쓰고 塗裝工業에 猛進하야 今日의朝鮮人塗裝業界의 先驅者가 되엿스며 氏는天性이淳厚正直하며 頭腦가明晳하야 使用人을 親兄弟가티 待遇함으로 近三十名의職工들이모다 師表가티思慕한다하며 現營業所는 大阪市東成區猪飼野西一丁目十二番地라고한다 (寫眞은木村塗裝部全景及 李鍾澤氏)

朝鮮食料品問屋

中央市場의 共益商會

大阪에는 二十三萬餘의朝鮮人이 居住함으로 우리의 食料品을 爲主하며 中央市場에만 단이는 사람만도 七百名갓가우나 오직 都賣店으로서는 純朝鮮人의 經營으로는 大阪中央市場北通에잇는 共益商會뿐이다 同商會는 名實共히 共益을 爲하야 銳利한戰法으로 經營함으로 나날이 繁昌하여저서 日本內地는 勿論 朝鮮內各地에서도 注文이輻湊하며 特히 販賣網에 잇서서는 重要地方에는 地方聯合會를 組織하야 京都 神戶 名古屋 和歌山等地에까지 有力한 店舖를 가지고잇스며 專門트럭과 오토바이로서 市內及隣接地에 物品配給을 敏速히하며 全仕入에잇서서는 直接貿易하는外에 朝鮮原産地로부터 委托販賣物品이日增하는 狀態라고한다 듯는바에 依하면 昨年度貿易額이 五十萬圓을突破하엿다는바 아마今年쯤은 百萬圓臺를넘으리라고하며 또若草粉末及製粉工場을 今年內로設置하고 더욱事業을擴大식힌다고한다

南王子村巨商

阪濟商會主 李基鶴 氏

氏는 濟州島舊左面出生으로鄕里에서 米穀商을 經營하며 日新組合長으로 奮闘하던바 지난 昭和四年에 大阪에건너와 眞珠商을經營하게되엿다는데 本是厚德한心情과 明敏한 頭腦의所有者로서 不斷努力으로 自然致富케되야 只今에는 鄕里에서 農村副業까지 奬勵하야 多大한收穫을어더서 商勢 益益發展中이라고한다 寫眞은 李基鶴氏

鍍金工業界明星

山本크롬鍍金工業所主 李用德 氏

氏는 [illegible]多谷面 梅月里出生으로 鄕里에서 普通學校를 卒業하고 家庭에도 일으지못한 少年으로 工場街를차저 大阪에 건너온後 鍍金技術을習得키爲하야 刻苦를더옵고 苦鬪專攻한後 七年前에 市內東成區東小橋南之町二丁目에서 自營으로 開業하고 卓越한技術로 業進함에 至今에와서는 斯界에聲望처럼 빗나고 잇스며 氏는二十歲의 靑年으로 將來가 遠大한 活動家로 第二工場까지 增築하며 對外貿易、眼鏡類、鍍金業에 힘쓰고잇다。 寫眞은 李用德氏

工業界의一人者

朝倉製作所長 金喆浩 氏

朝鮮人生産品中에 [illegible]品인낫도工業界에 直覺으로서 生産高의 第一位를 占領한분이 金喆浩氏라고한다 氏는 慶北淸山郡長川面上場里 出生으로 鄕里에서 學業에 힘쓰다가 距今十五年前即大正十三年봄에 工場地帶인 大阪에 건너온후 職場에 一職工으로서 勞働하는가운대 次次工業이 分業化되므로 將來 낫도工業이 有利할것을 늣기고낫도工場만차저 四五個所有力한 工場에서 技術을 專修한後 八年前에 西成區出城通五丁目二番地에다 現朝倉製作所를 設立한것이 現事業의 始初이라하며 只今은 三和製作所도 經營한다고한다 氏의特殊한技術과 敏腕으로 各地에서注文이增加하야 現職工四十餘名으로서 晝夜兼行을 하는狀態이며 昨年中 生産高는 約二十萬圓에 達하엿다고한다 氏는 今春大阪市會議員選擧時 立候補하야 落選은 되엿스나 大阪市內朝鮮人立候補中에는 最高點을어더다는바 百折不屈의氏는 압날의 躍進할것을 목도로 大活動中이라고한다 寫眞은 金喆浩氏

朝鮮人의代辯者

辯護士 金永曦 氏

氏는 忠南論山郡連山面出生으로 일즉이 東京에건너가 日本大學法科를맛치고 法律을 專攻하야 昭和十年度에 辯護士試驗合格의榮譽를어더 全南光州에서辯護士開業을 하던中 느긴바 잇서 京阪神在住二十萬朝鮮人의 代辯者로 大阪에건너와 只今東成區大今里町六二九에 事務所를 두고活躍中인데 氏는當年四十四歲의壯年活動家로서 性格이剛直豪膽한지라 우리法曹界에 氏의悠星的活動은 만흔期待를 갖고잇다 寫眞은 金永曦氏

"파스나"界技術家

立志傳中의 鄭性鎬 氏

氏는 全南光州府南町出生으로昭和二年에 大阪에 건너와 三年동안이나 職工生活로 지나면서 勤儉貯蓄한 僅少한資本으로 府下布施市北蛇草에서 파-스나製造業을經營하야 不斷의 努力으로 只今에는 二十餘名의 職工을 使用하며 鄭氏工場의 製品이라면 業界에서 歡迎하야 使用하게되엿다 鄭氏는 勤勞家로서 大衆의 模範이될 立志傳中의 한사람이라고한다 寫眞은 鄭性鎬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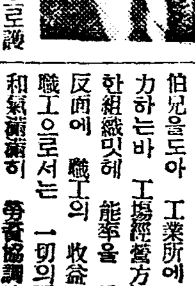
唯一한齒科醫院

京城齒科醫學士 金榮敏 氏

氏는 慶南晉州出身으로 일즉이 京城齒科醫專을 優秀한 成績으로맛치고 東京에건너가 더욱그方面을研究하던中 今春來阪하야齒科醫師高洪烈氏와 朝鮮人의集團中心地인 東成區大今里町에서金榮齒科醫院을開業하엿는바 大阪에서는朝鮮사람의齒科醫院은오직 金榮齒科醫院뿐이라고한다 氏는 技工이優越할뿐外라 朝鮮人의生活狀을잘理解하는만큼거의實費에 갓가운게 治療費를밧으므로 一般의人氣는 集中되야開業以來好成績을 보이고잇다 今後더욱施設을 擴充하여 保健事業에 奉仕한다고한다 寫眞은 金榮敏氏

護謨工業界重鎭

三益고무工業所 康興玉 氏



氏는 濟州島法還里 出生으로 일즉이 큰뜻을품고 家庭에大阪을 건너와서 護謨工業方面에職工이되며 不絕히 研究하며 勤儉貯蓄하야 最小한 資金으로護謨業을 家庭工業的으로 始作하엿다 그러나 氏의 不斷의努力은 今日의 三益고무工業所를大成케되엿다 氏는또 兄弟間敦睦하고 모두秀才로 令弟康玉君은 關西學院文科 明玉君은 東京帝大法科를 마치고 龍玉君은 京都第三高等學校에 在學中이다 氏의 家庭은 돈잇고 文筆이具備한 幸福의 家庭이며 慶玉君은 伯兄을도아 工業所에 專務로努力하는바 工場經營方法은 特異한組織밋헤 能率을 增進시키는 反面에 職工의 收益이增加되야 職工으로서는 一切의不平이업시 和氣藹藹히 勞資協調精神을發揮하야 이點에 對하야는 一般의 模範이되여잇다 康興玉氏不斷努力과 寬厚하고手腕家이므로 더욱大成하리라고 一般은 촉망한다고한다 寫眞 康興玉氏

OKレコード內地總販賣元
朝一印蓄音機並新譜
テイチクレコード蓄音器
朝一商會
大阪市東區東雲町一丁目三四
電話 東八一一三〇番
振替大阪一三四七八番

大阪市浪速區榮町二丁目三三
公認 大阪朝鮮藥業組合

大阪市旭區大宮町六丁目
松田洋服店
申飢求

大阪市住吉區庭井町二番地
大山組
代表者 宋在憲
電話住吉四一九一番

大阪市旭區森小路町一三〇
毛織物商
㊣ 亞細亞商館
電話旭二五四六番
振替大阪四四八〇九番

大阪府泉北郡大津町上之町
陳璎杓

大阪府泉北郡忠岡村
山名商會
金鎭泰

本籍 全南靈巖郡新北面金水里
住所 大阪府泉北郡高石町南
柳興善

大阪府泉北郡南王寺村
睦興洙

布施市長堂三丁町四八
高田工業所
金鍾日
電話布施一五九番

布施市長堂二丁目二三
山田眼鏡工業所
李漢明

ノーパンクタイヤ製造元
二和ゴム工業所
布施永和九三六
振替大阪一一四、一二四番

大阪市東成區猪中本町一丁目三五番地
張禧淳

(レコート吹込器新設)
各社蓄音器 朝鮮소리판 新舊書籍 各種雜貨 男女고무신 다리미製造
都散賣業 時昌商會
主 李時漢
本店 大阪市西成區北開町三丁目一 振替大阪七〇七五番
支店 東淀川區大和田町七ノ一四

大阪府泉北郡高石町
申鉉甲

本籍 慶南咸安郡[illegible]二堂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
朝鮮物產醬油酒類商
黃啓秀

本籍 慶南咸安郡伽倻面[illegible]谷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
米穀商 金容中

本籍 慶南咸安郡伽倻面舌谷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
朝鮮物產各白米商 李致慶

本籍 慶南東萊郡沙下面長林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
朝鮮料理 大同館
主 裵榮奎

本籍 慶南咸安郡伽倻面舌谷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松
各種製棉工場 主 安性中

本籍 慶南咸安郡伽倻面舌谷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
藥種商 金容元

本籍 慶南咸安郡伽倻面舌谷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
各種製棉工場 主 金叔斗

本籍 全南康津郡道岩面永波里
住所 大阪府關西線八尾驛前通北二丁
各種棉操業 通名伊藤勇 尹廣夏商店
振替大阪一一五六番 電話八尾一八番

本籍 慶南咸安郡北面中岩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大安中
ファスナー業 古物商 吉川商店
趙鏞福

大阪市東成區東小橋北之町二丁目一五六
諸金屬丸球 銃前 各種製造 林元植

大阪府下中河內郡枚岡村驛前
朝鮮料理大同館主 鄭珉喆

大阪市此花區茶園町一二五
古物商 金南喆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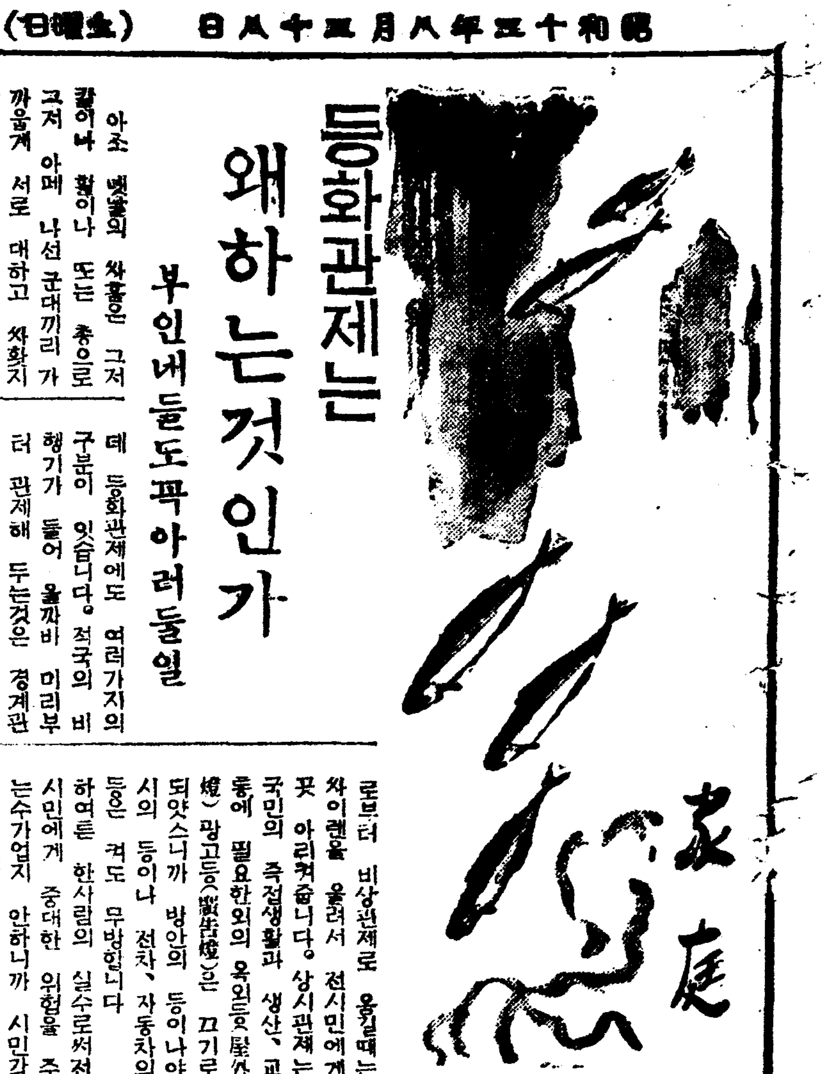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六ノ一九
各社蓄音器 レコード賣捌鮮洋樂器
長壽堂 主 金鳳[illegible]

大阪市東成區猪飼野大通一丁目三六
朱翼淳醫院

特許二重煉炭コンロ 火種無用火ガツツク 一個煉炭デ二十四時間保ツ 世界一ノ經濟ナコンロ 製造販賣元
大阪市南區元屋町
株式會社 旭煉炭コンロ商會
電話南六四五四番

棉實油 棉實油粕 カポツク油 カポツク油粕 椰子油 椰子油粕 荏油 荏油粕 製造販賣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 大阪八尾局私書函第四號
㊎ 岡村製油所
電話八尾局 五九 五五九番

本籍 慶北星州郡大家面興山洞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竹渕二五六
各國白米 酒類 商 ㊅ ミヤコ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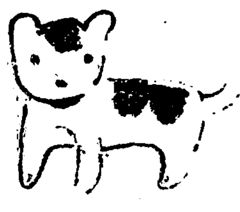


家庭

등화관제는 왜하는것인가
부인네들도꼭아러둘일

아조 옛날의 싸홈은 그저 칼이나 활이나 또는 총으로 그저 아페 나선 군대끼리 가까웁게 서로 대하고 싸화지마는 대포가 발명되고 대포의 탄환이 점점 멀리 가도록 발명된 뒤부터는 싸홈의 거리가 훨씬 멀어젓습니다。그래도 대포는 싸호는 마당 즉 전지(戰地)로부터 일정한 거리이외에는 더 못나가서 그 거리박게 잇는 다른 지방에서는 아모상관이 업섯지마는 비행기가 생기어 공중의 싸홈까지 가능케 되뒤부는 서로 적국의 어느편이나 쪼차가서 부시고 깨트리고 할수가 잇게되엿습니다。이번 사변에도 제국공군(空軍)은 남경(南京)을 비롯하야 항주(杭州)한구(漢口)등을 폭격(爆擊)하지안하얏습니까? 현재의 전지인 상해로부터멧백리 멧천리 떨어저 잇서도 공군의위력(威力)압페는 아모 소용이 업는것입니다그려 그런데 공군이 습격을 오게 되면 그것을방어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공(防空)이라는것으로 첫재는적국의 비행기로하야곰 폭격할 목적지를 찻지못하도록 맨들어야하고 둘째는 폭격하려온 적국의비행기를 이편의 비행기나 또는 고사포(高射砲)로 공격하는것은역시 군대를 신뢰하고 맛길일이겟지만은 적국의 비행기로하야곰 목적지를 찻지못하게 하는것은 일반민간에서군대와함께 협력을 하지안하서는 안됩니다。대개 비행기로 어떤 곳을 습격하자면 낫보담도 밤을 이용하야 몰래들어오게 되니까 그런때불을 모다꺼두는것은 몰래들어온 적국의 비행기도 어디가 여딘지를 잘 모르게 될것입니다 설사폭탄가튼것을 던진다고하더라도 잘 맛지안할 뿐이아니라 목적지를 못 차저서어리둥절하는 동안에 이편짝에서는 공격하기도 조케됩니다 물론 지나의 공군이란 문제가 되지안하나 그래도 방심보담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십륙일부터 서울서 등화관제(燈火管制)를 하게되는것도 그러한 까닭일것입니다。그런데 등화관제에도 여러가지의 구분이 잇습니다。적국의 비행기가 들어 올까바 미리부터 관제해 두는것은 경계관제(警戒管制)、적국의 비행기가 들어와서 일층 더 관제에 힘쓰는것은 공습관제(空襲管制) 시기가 협의하니까 미리연습삼아 경하게 준비하는것은상시관제(常時管制)입니다 이십륙일부터 실시하는 관제는 상시관제입니다。상시관제로부터 비상관제로 옮길때는 싸이렌을 울려서 전시민에게 꼭 아리켜줍니다。상시관제는 국민의 직접생활과 생산、교통에 필요한외의 옥외등(屋外燈)광고등(廣告燈)은 끄기로 되엿스니까 방안의 등이나야시의 등이나 전차、자동차의 등은 켜도 무방합니다

하여튼 한사람의 실수로써전시민에게 중대한 위험을 주는수가업지 안하니까 시민각자 방호단의 지시에따라 노력해야만 됩니다。조그만능ㅅ불하나의 부주의로써 자기는 물론이요 이웃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희생케 된다면 그얼마나 부끄럽고 면목업는 노릇이며 그얼마나 사회적 큰 죄과를 범하는것입니까?



長篇小說

찔레꽃 【110】

金末峰 作 金熊超 畵

적자(赤字)(二)

대문안으로 드러서자 방금 대문간에서 청어홍정을 하고잇든 옥란이 어머니가

「아유ー 영감 아유ー 이게얼마만이시유?」

하고 들고섯던 청어두름을 동댕이를치고 두취아프로 닥어선다ー

「잇나요?」

하고 두취는 혀으로 광방울거라첫다

「네ー 저 기애말슴이야요? 기앤 오날달리 이가수신다고 바로근처 치과엘 갓습니다…치우신데 어여드러가세요」

하고 안방문을열고 두취를 모서드리는것이다

인제겨우 중뎁이넘은 옥란이어머니는 기생어머니로써의 틀이 딱잡힌 능란하고 자신잇는 솜씨로

「이제꼿 올테니깐요 당배나붓치세요」

하고 저거먼저 해테에다 불을 붓치며

「치위에 댁에다 안녕하십니까? 참 얘기네들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오죽들……」

옥란어머니는 손끄트로 저고리고롬을 감어다가 눈두석을씻는다

두취는 아래목에 쪼구리고안진채 외투도벗지안코 멀뚱멀뚱옥란어머니의 두어줌 기미가 흘려간 이마전을 바라보다가

「저ー치과에 갓거든……이길로 꼿좀 사람을보내서 불러다주시요」

「기앨 말입니까」

「네!」

두취는 간단히 대답을하고외투주머니속에 처박고잇든 한손을빼여 담배를지벗다

「네 그럼 꼿불러오죠 위선외투나 버스세요」

하고 옥란어머니는 문박그로나갓다

「치과에 갓슬가? 그길로 다려나 버렷는지도 모르지 흥」

이러한생각을 하고잇는사이 어느듯 방에는 전등이켜젓다

치과실 노픈교의에 비스듬이 기대누은 옥란은 의사가 바뿌게 탈지면을 이ㅅ몸에끼우고옥도정기로 이를울닥고 무슨 낙시가튼 침으로 잇새를파내고할동안 그의머리속도 의사의손과가티 바뿌게 도라가고 잇는것이다

「근호가 평양에내려가면서 이번에는 꼭 돈을가지고온다하엿겟다……하지만」

옥란은 짬을다서 각금울리는 근호의 작열(灼熱)된사랑에 대하여 차츰 공포를 느끼게되엿스니 그것은 근호는 진정으로 자기가 교와함께 어데던지 다라나줄것을 밋고잇는 모양이다 근호가 다짐을할때마다

「네、네! 그거참말이야요?아이난 정말 행복이야」

하고 근호의무릅에 얼굴을 파무뎌주기는 햇지만!

기것 따라가보앗자 가지고간돈이 다업서지면 몸을 일허버린 생선처럼 불상하게될 자기의운명이 너무도 분명히 보이지안느냐

설사 근호가 큰맘을먹고 만원혹은 이만원을 집어온댓자 그것을 절약하여 한십년 생활을할수잇다하자 과연 그돈으로 안심하고 살아갈수가잇슬가 밤이고낫이고 법(法)이라는 무서운그물을 피해다녀야만될 자기신세가 얼마나 불상하냐!

이러한 모든것을 타산하는 옥란의눈아페는 보다 찬란하고 축복바든 생활이 손짓하고잇스니 그것은 인제곳 조만호씨의 정식부인으로 드러안게되는일이다

「조씨는 한달전에도 아니 보름전에도 아니아니 일주일전까지도……그는 단연코 나와 정식으로 결혼한다고 그리지 안는냐?」

이러케 맘속으로 되여본 옥란은 최근호라는 귀찬은청년을 어떠케 무사히 퇴치할방법을 머리속으로 떠돌어보는것이다。어데서인지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못한다」

하는소리가 귓가에서 속군거리는듯도하다 그것은 근호가 꼿잘 입버릇갓치 외이든말이다。그러나 옥란은 그말을 반박이나하는드키

「그럼 사랑만으로는 살수잇는가?……」

하고 사르르 눈을감엇다。그려나 스사로 총명한줄 생각하고 남들도 똑똑하고 영악한기생으로 지목하는 옥란이도 자기가 근호에게

「네ー다라나버립시다 네ー 당신과함께가면 어덴들 못가요」

하고、재꺼리는것이 뻔안거즛말이면서도 조두쥐가 자기를향하여

「응、결혼하구말구 옥란이……정실로 맛는데 누가 이러니저러니 챙견할사람이 잇슬라구」

하고 장담을하는 말을 참인줄로밋는 옥란은 진실로 어리석은 녀인이 아닐수업는것이다

「양치하십시요」

하는 의사의말대로 꼽보물로입안을 씻슬때 층층대를 허둥거리며 오라범이 올라왓다

현관으로 나올무렵에

「두취영감이 오섯서」

하는 말을듯고야 옥란은 비로소 후ー하고 큰숨을내쉬엿다××

×옥려관에서 옥란에게 사람을 보내려고 하녀를 불러올린최근호는 따끈한차를 가저오라명하고 옥란의집에는 직접자거가가리라고 결심을하엿다

하녀가 차를갓다두고 내려간담 그는 위선 ××은행원이라 박혀잇는 자거명함들과 여간 녀저래한 서류들을 한데몽뚱거려신문지에쌋다

그러고 마즈막으로 가방맨밋바닥에 엎드려잇는 사진을 드러냇다

근호는 물끄럼이 사진을 드러다보고는

「미안하지만 살아버립니다」

하고 어느여학교 교수의뭇 세일러를걸친 랑편어깨위에 귀여운 머리거락이 빼곱이 내다보이는 동그스름한 소녀의 얼골을 잘근 절반으로 껵거버렷다

지난봄에 개성 자기본집에서보낸사진이다

맘에들면 내려와서 약혼을하자는것이나 옥란이란 우상이잇는 근호에게는 물론 제복(制服)을 입은 소녀따위가 눈에들리는 업섯다。

찟겨진사진은 말업는항의(抗議)를하는드시 빤ー히 자기를 처어다보는듯하여 그는 손바닥으로 사진을 두어번 쓸어주고는 얼른 신문지에 한데뭉쳐버렷다

근호가 저녁을마친뒤 계산을 치르고 큰길로나오때는 저녁여섯시가 조곰지나 삭풍이 울고가는 거리에는 현황한불빗이 홍수가티 넘실거리고잇다

근호는 외투깃을세운채 경성역울지나 한참거려오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탓다。

근호는 옥란의집 문아페이르자 그는 위선 문간방을향하여

「어먼잇수?」

하고 문고리를 잡아다렷다。

「서、서방님 웬일이시야요」

서룸질을맛치고 어린것에게젓을 울리고누엇든 어멈은 기급을해서 이러낫다。

「쉬ー 아씨잇나?」

「네ー 잇서도 뚜취영감이 오섯는데요」

「옴 지금 안방에돌잇지?……어멈 나 크이들말을 좀드러봐야겟는데」

근호는 실원짜리한장을 어멈의손에 쥐어주엇다

「네ー잠가게서요」

어멈은 고색창이똔 어린것을살고머니 뉘여두고 근호를 문간에세워둔채 안마당으로 도려가서 회휘 사면을살피더니

「이리로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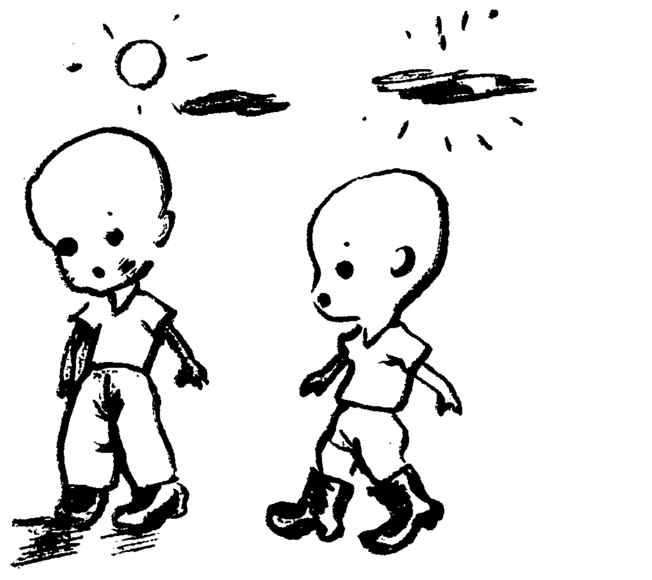
하는듯이 손을친다

우리차지

고무장화

비가 울것가태서 고무장화를신고 나섯더니 볏이쨍쨍낫습니다。그래순득이는 양복바저속으로 꾸두목아저를 접어 너헛습니다。어떳습니까 여러분。

(글 金尙壽 그림 오칠鳳)



御存じ……?夏のお肌の手當法!

★海水浴後의注意

물속에서 나와 숨때 몃해께름물비누로씻스면 살결이거칠어지지안습니다 最良法은…… 레ー도구레ー무로 먼저문지른다음에 물로잘씨슨것입니다 그밖 살결을 거칠게하는 일이업고 어여쁜 살결로回復식힙니다

★팔을곱게하는法

때가끼인팔과……곱고어여뿐팔과…… [illegible] 는……? 팔목에털가튼것은 良質인 脫毛劑로사뜻하게업새버리고레ー도구레ー무로充分히손질을하십시요ー팔굼치의 잔주름과 粗皮를 조치못하게하오니레ー도구레ー무로잘문지르고 特히맛사ー지를잘하여 [illegible] 力이잇는살결을만드십시요

★惡性벗끼름의豫防法

嚴密한科學的實驗으로證明되엿듯、紫外線을遮斷하는能力이 第一强한레ー도구레ー무로 살결을베만지는方法입니다 메라닌이라고하는 黑色素의增殖을 防止함으로 惡性벗끼름이되는念慮가업고、언제든지魅力이 흐르는 健康色을가질수잇습니다

★化粧멀림을막는法

化粧이멀리는것은……皮脂와 크림을 바랑으로서 는것이最大原因이라고……하는데 [illegible] 하서거던 化粧下에는 레ー도구레ー무를使用해보십시요언마나 白粉이잘먹고、지택이 잘되여오래가는가 當場에알수잇게됩니다

★살거침解消의良法

여름에살결이거칠지는것은新陳代謝가 너무旺盛하여서살결의脂肪이 不足한때문입니다 살거침은 가을철에드러서는 때가되면 特히눈에잘띄움으로살결을淸潔하게하고 品質優秀한레ー도구레ー무로 只今부터 充分히손질을하십시요 살결거침을 解消하고健康美가흐르는[illegible]한살결을만드러줍니다

★벗끼름解消의良法

레ー도구레ー무 少量을접시에물어서얼굴과손의 볏에끼른部分에잘문지르고暫時맛사ー지를하십시요 燒痕을防하야볏끼름이되엿때는、호ー사록물에풀어서압포ー하고 그다음에 레ー도구레ー무로손질을하면 異常하게도 볏끼름이 卽時解消되여버립니다

★効果的經濟的인구레ー무

여기에는 品質이조코濃度가놉흔……레ー도구레ー무를使用하는것입니다 퍼지기잘하고 他品보다 二倍以上의 使用價値가 잇는것을 科學的으로說明하엿습니다 少量의使用量으로能히 効果를나타낼수잇스며 夏期에는물게엷게풀어서使用해도 꼭알맛고 그限가업는濃度를가지고잇습니다

何時も若肌に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東京・平尾贊平商店

在大阪朝鮮人活躍全貌

實業界의重鎭 東亞興業研究所長 林正業氏

現代的實業家로서 將來企業界를左右하리라는期待를 一身에集中시키면서 悠悠進展하는 氏의存在는 封建的商業形態로부터 現代的企業形態에 推移發展하는 朝鮮人實業界를指導할 唯一한存在이다 氏는京城出生으로 性格이快活하고 일즉이東京業界에서 盡力의功을다한 知的教養과 스포츠的타입은 모다 實業家的手腕能力 自信을具有케하는要素가되고잇스니 一時某皮革會社에서勤務하던氏는 이것에滿足을엇지못하고 八年前에 浪速區栄町四丁目에 東亞興業研究所를設立하야 和歌山 第二分工場을 分設하고 ボックス エナメル キット等皮革加工業에 獨特한技術과 優秀한成績을發揮한것이 氏의實業界에出現한出發點이다 只今은 東洋物產合資會社를組織하야 海陸物產鑛物業을 兼營하며 또龍子原理의新發明藥品(肺病、神經痛、喘息、胃腸病等의特効藥)シントル의全日本總販賣元을 經營하고잇스니 氏의 實業的兩腕은 關西實業界를風靡하야 남음이 잇슬뿐아니라 實業界에서는 氏의前途에만흔期待와發展이잇슬것을 確認하고잇다

刀圭界의第一人 第一醫院長 李圭洪氏

氏는 全南濟州邑出生으로 大阪市立扇町商業學校를 卒業하고 九州醫專을優秀한成績으로 마친後 市內東成區猪飼野東二丁目에다가 第一醫院을 設置하고 藥代는 最低價로 往診은 自轉車로 親切히 應한 李氏의人氣는集中되야 隣接同胞들은 活佛가티 生覺하며 또大阪府健康保險醫가되엿슴으로 保險患者가 多數治療를받게되엿스며 氏는二十七歲의靑年醫師로 天性이快活圓滿함으로 氏는將來에 在住同胞를爲하야 만흔事業이잇슬것을 期待한다고한다 (寫眞 李圭洪氏)

熱情的의事業家 高麗人蔘商 林世龍氏

氏는 開城出生으로 故鄕에서 松高를마치고 開城人蔘業界에서 活躍하든바 昭和十年十一月에 遂 大阪에건너와 北區南扇町五番地에 開城人蔘宣傳配給所를두고 宣傳販賣에努力中이라는바 氏는特有한手腕家로서 將來有望한信條下에 開城人蔘『라임스』라는 日本文月報를發行하야 朝鮮人蔘의特効를더욱 日本內地人大衆에게 再認識시키며 第一期로 五個年計劃을樹立하고 每年六七千圓의 費用을들여서 多方面으로 宣傳中인바 朝鮮의名產 高麗人蔘을 日本內地에 그需要를 增進케한다는것은 무어보다도 敬賀하는同時에 氏의今後活躍을 크게期待한다고한다 (寫眞은 林世龍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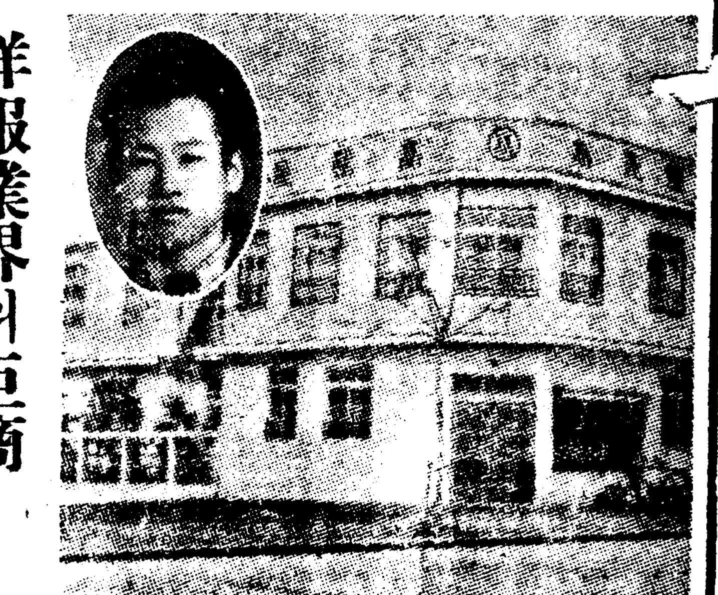
枚岡村會議員 姜信吉氏

氏는 慶南宜寧郡龍德面井洞里出生으로 大阪에건너와 現在府下中河內郡枚岡村에居住하기十餘年에 在住同胞의信任을 어더 今番 村會議員選擧에當選되엿다는바 氏는 當年三十一歲의靑年으로 村政을爲하야 奮鬪하리라고한다 (寫眞은 姜信吉氏)

漢洋藥業界의覇王 普生堂藥房主 金昌鉉氏

大阪에서 信用과名聲이確固한藥業界敎賣商의首位를차지하면 普生堂大藥房일것이다 主人金昌鉉氏는 全南康津郡城田面月坪里出生으로 幼時부터 斯界의大家姜在鳳氏門下에서 氏의世傳秘方을傳授하야 距今四十年前부터 藥種業을經營하는 一方 漢方醫學을專攻하야 斯界에名聲이 자자하게되자 京城東西醫學講習所講師로 招聘을바든일도잇섯고 總督府醫生 防疫委員等 保健衛生上 多大한貢獻을하여오다가 十年前부터 大阪에 건너와 現在東成區中道本通一丁目에 本舖를두고 豬居町에 粉末工場 放出町에 製藥工場과 數處에 倉庫를두고서 日本內地는勿論 朝鮮滿洲各地의著名한同藥者를 相對로 널리販路를가지고잇다 溫厚篤實한氏의 品性과高明한識見에는 內鮮人間知友의敬慕를밧고잇스며 氏의令息丙龍氏도 또한그聰穎을밧아 明敏한頭腦와 非凡한手腕을가저 在留同胞中 靑年實業家로서의將來를 期待한다하며 現在大阪府公認藥業組合評議員으로 業者의福利增進을爲하야努力하며 社會的으로도 有形無形의貢獻이적지안타고한다 (寫眞은 藥房及 金昌鉉氏(右) 金丙龍氏(左))

洋服業界의巨商 高麗屋主 韓亨錫氏



大阪에서 有名한洋服店을치는데는 누구나高麗屋을 屈指한다 高麗屋主 韓亨錫氏는 咸北明川出生으로 일즉이中學을 卒業한後洋服業에對한 將來性을 늣기고 東京에건너가 東京洋服學校를卒業하고 더욱專門的 技術을修練한後 大阪市旭區森小路町에서 洋服製造問屋高麗屋을 經營하야 每年二萬着以上을 生產하며 日本內地及 朝鮮滿洲國各地에 外交員數十名을 派遣하야各官公署에 注文을밧는다하며 그製品의精密에는 好評이 자자하다는바 韓亨錫氏는 當年三十七歲의 壯年實業家로서 性格이快活하고 手腕이能濶하며 洋服業界成功者의 第一人者이라고한다 (寫眞은 高麗屋洋服店과 韓亨錫氏)

多角的의活動家 八尾地方 楊周赫氏

八尾地方에서 朝鮮人側에 手腕家를칠때 楊周赫氏를 먼저치게된다 氏는慶北漆谷出生으로 昭和四年에 八尾에居住한後로는 內鮮共愛會를 組織하야 只今에副會長으로잇스며 또龍華町 在住同胞間에 納稅組合을 組織하고 現組合長이 되엿스며 一方同村衛生組合評議員으로서 公私間信望이 두터우며 八尾藤村製油會社社員으로 人事係에잇서 또한勞働者에게 親切함에도 稱頌이자자하며 氏는남의 괴로운일이라면 不避風雨하고 斡旋을하는 溫厚篤實한 實踐家이라고한다 (寫眞은 楊周赫)

綢緞布木商 金瀅祺氏

氏는 濟州島翰天面新村里出生으로 大正十五年度에 大阪에건너와 綢緞布木商店을 市內浪速區立葉町에서 經營하다가 現在에는 今宮朝鮮市場인 西成區鶴見橋北通七丁目에 移轉擴張하야 名實共히 朝鮮人綢緞布木商界의巨商이다 氏는 또한有名한商略家로서 日本內地原產地에서 買易은 勿論朝鮮內各原產地에서直移入함으로 每年巨大한 利益을본다하며 氏는過去 여러가지朝鮮人事業에 陰的으로 陽的으로 만흔援助가 잇섯다고한다 (寫眞은金瀅祺氏)

人造眞珠로成功 阪南商會主 朴煥玉氏

氏는 全北南原出生으로 疲弊한 朝鮮農村을 등지고 生生한商工都市大阪에 渡來한氏는 爲先自己生計를 確立함과 同時에 失業線上에 헤매는 同胞들을救濟하기爲하야 昭和七年에 阪南商會를 組織하고 不撓不屈의努力한結果 只今은 人造眞珠業界의 第一人者이요 朝鮮各地에 幾個所의支店을 設置하고 年產額數萬圓의 巨額을 이루고 잇슬뿐아니라 失業同胞에게도 만흔便宜를圖謀하고잇다 이것은 氏의 堅固한意志와 沈着한性格의 所爲만이아니라 信用과 德望이 맷은 結果이다 (寫眞은 朴煥玉氏)

南王子村代表人物 村會議員 申正湜氏

泉北郡에서 朝鮮出生의 中心人物을말할때 먼저申正湜氏를指摘한다 氏는慶北慶山出生으로 泉北郡南王子村에 居住하며 一般의信任을어더 村會議員으로當選되엿다하며 性格이 寬厚하고 正義心의 所持者요 卓越한抱負와敏活한 手腕家로서 當選되자 不過數個月에 朝鮮人學務委員과 區長各一名式을選任케하엿다는바 全혀 村會에서 氏의努力한까닭이라고한다 如斯한 活動家인만큼 今後의 活躍을 一般은 더욱期待한다고한다 (寫眞은 申正湜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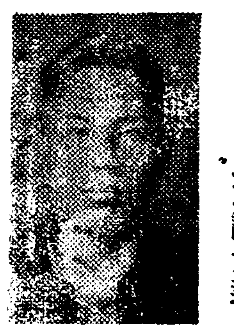
枚岡村의元老 村會議員 李在煥氏

氏는 全南靈光郡文平面大新里出生으로 八年前에 府下中河內郡枚岡村에 寓居한以後로 枚岡村同胞共愛會長으로도 잇섯스며 大阪在住兄弟를爲하야 事業에힘쓰러든바로 當年四十五歲의壯年에 枚岡村唯一의 老練手腕家이다 今般村會議員으로 當選되엿다 氏는 在住同胞들의信賴해줌을 늘感謝히 생각하는만큼 最善을다하야 奉仕하려고한다고한다 (寫眞은 李在煥氏)

乾材藥業의慧星 大聖商會主 朴聖吾氏

大阪에 건너온지短期間에 藥業界의 成功者를칠때는 朴聖吾氏다 氏는 京城府黃金町出生으로 幼時로부터 家傳業인 乾材貿業을 繼承하야 一時는 南鮮藥業株式會社를 設立하고 取締役으로 活躍하엿스며 漢藥의 原產地인 支那南北滿洲及 上海等各地까지 踏査한後 五年前에 東洋經濟界의 中心地인 大阪에건너와 現在東成區猪飼野町朝鮮市場前에다가 本店을두고 天六에다支店 枚岡에다 製粉工場을두고 日益長就의勢로 繁榮해간다 氏의獨特한經營方針은 業界에 彗星的存在를갓게되며 洋漢藥業街인 道修町商人들조차 氏의敏腕에는 驚伏한다고한다 (寫眞은朴聖吾氏)

勞働者들의活佛 土木請負業 吳根伯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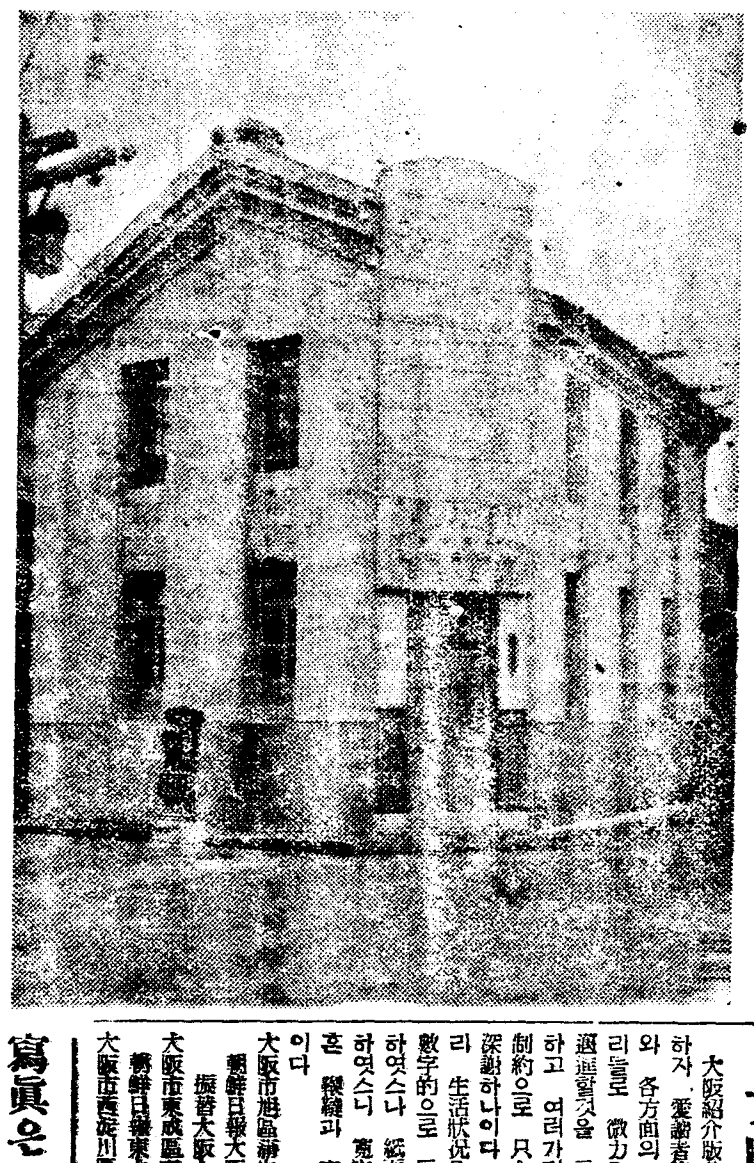
氏는 全南務安郡一老面出生으로 十六年前에 大阪에건너와 土木請負業을 하게되자 自然히 勞働者와親密하게되며 괴로운勞働者들의 救濟에힘썻슴으로 그附近勞働者間에서는 活佛가티 그를生覺하며 氏는同胞들의 住宅難을緩和식히려고 現居住地인 中河內郡龍華町竹淵에다가 一百六十餘戶의 住宅을 建築식히여 大阪唯一의 朝鮮人集團的居住地를 이루엇슴은 全혀 氏의 貢獻이 크며 또한 衛生組合設立에서 發起者가 되며 衛生組合을 設立케 되엿스며 同胞들의保健衛生에 對하야 貢獻이 또한만흔만큼 當地屈指의德望家로서 將來의 그의活動에 만흔囑望을갓고잇다고한다 (寫眞은 吳根伯氏)

徽章製造成功者 精工堂主 許道石氏

氏는 忠南唐津郡沔川面倉里出生으로 大阪에온후로 낫으로는 貴金屬徽章메달賞牌優勝記念品類等製造를研究하며 밤으로는東商業學校를단이며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後 東成區鶴橋北之町一丁目에다 精工所를 設立한것이 이 精工堂이다 創立한지 不過四年만에 官公署及民間會社等各地에서 注文이輻湊하야 店勢는日增하며 信用을어더 今日의 盛況을일우엇다는바 氏는當年二十九歲의 靑年으로서 店勢擴張키爲하야 鮮滿地方各處에 代理店을求하는中이라고한다 (寫眞、許道石氏)

眞珠業界의王者 敏活한手腕家 朴海鍾氏

氏는 慶南山淸郡出生으로 天性이溫柔하고 信義가두터운氏는 八年前에現住所 南王子村에來阪하야 眞珠商을經營하게되엿는바 敏活한活動과 忠實한努力의結晶으로 只今은眞珠業界의重鎭과信望을 占有하야 相當한地位를獲得하고잇스며 또救濟事業을目的으로하는 地方朝鮮人親睦團體協成會를 익그러 多年間努力하고잇는바 民間에서도 有爲한靑年이라고하야 前途를期待하고잇다한다 (寫眞은 朴海鍾氏)



土木請負業巨星 社會事業家 金貴朝氏

氏는 慶南宜寧出生으로 當年三十四歲의 靑年으로서 現在西淀川區佃町二丁目에 事務所를두고 土木請負業을 經營하는바 半期의 請負額이 二十六萬圓이며 一個月의賃金만이 一萬七千餘圓이나되는바 每日使用하는 人夫는 四百餘名이나 되며 氏의 豪爽한 性格과 敏活한 手腕에 感服되야 一人의 不平者가업시 勞務에 忠實하므로 널리 信用을바더 今日은 土木請負業界의 王座를 이루엇스며 氏는 社會事業에도 遠大한 抱負를가지고잇다고한다 (寫眞은 金貴朝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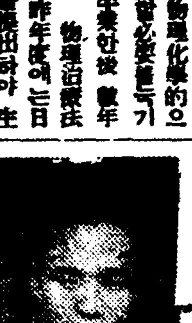
漢藥界의信望家 奉仕的醫生 申炯湜氏

氏는 慶北聞慶出生으로 元來才操가 잇서 弱冠에 漢學의大成을보게되엿스며 天性이溫柔正直하야 士道에 어긋남이업스며 四年前에 來阪하야 大阪府泉北郡南王子村에 寓居한後 藥房을設備하고 다시一層 더學力을싸으기爲하야 新藥講習所를 다니면서 優秀한成績으로맛치엇스며 氏는 親切叮嚀과 營利를度外視하고 奉仕的임으로 開業未久에 日鮮人間에 信望을어더 門前成市的盛況을 일우으며 氏의德行에는 稱讚이 자자하다고한다 (寫眞은 申炯湜氏)

古物商界의王座 西淀川區 吳宜煥氏

三十五歲의 靑年商業家로서 恰剛한商略과 百折不屈의 意志를 具有한氏는 慶南昌原郡鎭北面秋谷里本籍에 蟄居하기를 不好하고 四年前 偉大한 抱負와 希望을품고 西淀川區御幣島町二二五番地現住所에 渡航하얏다 그러하야經濟的洗禮를 바든氏는 무엇보다도 廢物利用에 着眼하야 古物商을 開業하고 對人接客에 親切叮嚀을 本位로함은 勿論信用第一主義를 信條로 惡戰苦鬪한結果 只今은 一個月賣買高가 八千餘圓을 超過할뿐아니라 古物商界의 王座를 占領하고잇다 (寫眞은 吳宜煥氏)

物理療法醫學士 保命堂藥房主 閔丙燮氏



氏는 全南靈岩郡新北面葛谷里出生으로 鄕里 私立學校에서 敎鞭을잡고 保育事業에從事하다가 昭和二年度에 大阪에와서 漢方醫에關한研究를繼續하던中 漢方으로만은 氏의研究心을滿足식히지못하게되자 物理化學的으로 患者治療法을研究할必要를늣기고 大阪物理療法學校를卒業한後 數年間實驗을하여오든中 昨年度에는 日本物理療法學士試驗에 論文을提出하야 合格되고 現在市內東成區猪飼野中八丁目에서『カイプラクチック』專門으로 難病을 完治하야 病者에게 一大福音을주는 同時에 [illegible] 閔氏에는 一般의 好評을맛고잇다고한다 (寫眞은 閔丙燮氏)

眞珠商界의權威 眞珠工場主 金楊玉氏

銳利한 頭腦와 沈着한 態度로 凡事에 臨하는氏는 大阪府下泉北郡南王子村에 眞珠工場을 經營하며 慶南北道에 分工場을設置하야 鄕土同胞의 失業을救하고 農村工業化를 計劃하고잇다는바 現在多大한 生產額에 達하는 成功을 獲得하고잇다 그뿐아니라 元來慈善心이 豐富한 氏는 職工들에게寬大함은勿論 地方出困者 失業者에게 對하야서도 誠心赤誠으로 同情함을 애끼지안는 慈善家라고 各方面에서 讚辭를밧고잇다 (寫眞은 金楊玉氏)

朝鮮文印刷 大阪
印刷一般 (高)
精文社印刷所
東成區南中道町三ノ一八一

自轉車用品製造 永井工業所長 康龜範氏

布施에서 朝鮮人實業家를칠때에는 靑年手腕家로 氏를 屈指하게되다 氏는當年二十九歲의靑年으로 일즉이東京外國語學校를 단엿스며 故鄕은 濟州島法還里라하며 現在布施市高井田町에서 自轉車部分品製造工場인 永井工業所를 經營하고잇다 氏는 優秀한技術의所持者로서 모든製品이 精密한것과 大量生產임으로 單價가低廉하게되며 注文期日에는 一次의遲滯가업시 配達함으로 一般需要家의信望이 多大하다고한다 (寫眞은工場全景과康龜範氏)

塗裝請負業元老 村田商店主 鄭鎔鎬氏

氏는 京城府 蓬萊町出生으로 大正五年度에 赤手空拳으로 大阪에 건너와 塗料에對한 專門的技術을 修得한後 十餘年前에東區木幡町에서 諸機械塗裝 請負業을 始作하엿다는바 朝鮮人으로 塗裝業을 經營하기는 이村田商店 鄭鎔鎬氏가元祖라고한다 氏는 技術도 優秀하거니와 一에도信用 二에도信用 이것이 鄭氏의信條로 十餘年營業에 一次라도 契約을어긴일이업섯다고 一般業界에서도 稱頌하는바 오날의成功도 이信條의 結果라고한다 氏의家庭은 平和하고 子女도만하서 多福한家庭으로서 令息兄弟는 借行社附屬小學校를卒業하고 모다 中學에在學中이라고한다 (寫眞은 鄭鎔鎬氏)

大阪紹介版을내면서

大阪紹介版發行의 計劃을發表하자 愛讀者諸賢의 積極的支持와 各方面의 懇曲한期待는 우리들로 微力을 一蹴하고 勇往邁進할것을 示唆하엿슴에도不拘하고 여러가지 事情과 不意한制約으로 只今까지 遲延되엿슴을深謝하나이다 生活狀況을 紹介하는同時에 數字的으로 反映식힐것을 意圖하엿스나 紙面關係로 如意치못하엿스니 寬容하시고 아프로만흔 聲援과 支持가잇기를바라나이다

大阪市港區淸生町一〇 朝鮮日報大阪總販賣所 振替大阪七二六六番
大阪市東成區東小橋北元町三의九 朝鮮日報東大阪販賣所
大阪市西淀川區淸江北二의一四〇 朝鮮日報西大阪販賣所
大阪市西成區長橋通七의四 朝鮮日報南大阪販賣所
大阪市東淀川區中津南通四의四一 朝鮮日報北大阪販賣所
大阪市大正區北恩加島町三一 朝鮮日報大正區販賣所
大阪市旭區新生町一〇 朝鮮日報旭區販賣所
大阪市東成區深江町 朝鮮日報布施販賣所
大阪府堺市戎島町一의一三 朝鮮日報堺市販賣所
大阪府枚岡村額田 朝鮮日報枚岡販賣所
大阪府八尾町 朝鮮日報八尾販賣所
大阪府泉北郡南王子村 朝鮮日報和泉販賣所

寫眞은 本社大阪支局社屋全景

001093

本籍 慶北迎日郡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 一六〇 金銀細工商 金琦鳳

本籍 慶北迎日郡松羅面中山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八尾町 セルロイド細工所 李慶德

大阪府中河內郡若江村北若江六九一 アイボリナツ 張漢德 ド加工所 張一

本籍 慶南晉州郡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四七三 綢緞布木商 海陸產物販賣 金占錫

本籍 慶北尙州郡咸昌面五八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松一三二ノ六 漢藥商及片倉生命社員 趙東植

本籍 慶北迎日郡松羅面光川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八尾町大信寺五三 セルロイドハンドル商 尹相吉 電話八尾五七九番

本籍 慶北盈德郡南亭面元尺洞 住所 大阪府中河內郡久寶寺村三番ノ一 セルロイド加工業 張昌壽

本籍 慶南密陽郡上南面 住所 大阪府中河內郡西線八尾驛前通リ北 朝鮮物產 醬油酒類 商 金聖達

本籍 慶南咸安郡伽倻面舌谷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松 各國自轉車 販賣及修繕 金明坤

本籍 全南靈巖郡美岩面斗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松一三四〇番地 古物商 尹一有萬

本籍 慶南咸安郡伽倻面舌谷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 金台汶

本籍 慶北達城郡城面新岩洞 住所 大阪府布施市長瀨北蛇草一〇六 漢藥商 金敬玉

本籍 慶南金海郡長有面茂里 住所 大阪府布施市北蛇草一一三 朝鮮海產物及朝鮮人蔘販賣 朝鮮名產江原道江浦 張瑛鎬

住所 大阪府布施市北蛇草一九八ノ一 電話布施七二六番 自轉車部分品製作所 鄭達秉 雜貨綿布酒類 金物海產物一式 本籍及營業所 全南濟州島城山浦

本籍 慶北盈德郡德面華水洞 住所 大阪府中河內郡八尾町大字西郷一七 古物商 金萬秀

登錄商標 ヒユーキ印 合資會社 藤村製油所 特選綿實粕 各種油粕類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 電話八尾三番電略(フセ)又八(フ)

本籍 全南務安郡海際面鶴松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松一三四〇 製紙原料商 金村商店 主 金年豊

本籍 慶南南海郡邑內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松一一七 眼鏡レンズ製造業 鄭安根

三和電器製作所 線物エボナイト 自轉車用ランプ 宋祥玉 韓達官 張一權 大阪府布施市北蛇草一三二

本籍 全南 住所 大阪府中河內郡若江村北若江 金泰洪

戰爭文學 (二)

安市城과 詩

湖岩

安市戰 햇스라。
은 麗唐燕行때詩人 金三淵(昌翕)은 役에서 牧隱보다도 일층더 讚揚的 全局의勝 으로 이것을 올려 蓋蘇決 千秋大膽楊萬春。箭射虬髯落眸子。
하는 寒驗이다 라고하엿다。虬髯은 말할것도업시 唐帝李世民을 指稱한것으로 楊萬春이가 李世民을 화살로쏘와 그눈을 마치스므로 蒼皇히 班師하게 되다하다。

安市城主 楊萬春이 唐帝李世民을 화살로쏘와 그눈을 마치스므로 蒼皇히 班師하게 되다하다。麗末名儒李牧隱(穡)은 그 貞觀吟의 一句에 어룰 을 떠갈으되
爲是囊中一物耳。那知玄花落白羽。
玄花는目이오 白羽는箭이니 囊中物로 알엇던것이 화살에마저 눈이傷할줄 어찌뜻하엿스랴。
民을 화살로쏘와 그눈을 떠러처다。
以上二老의 詩는 朴燕岩(趾源)의 熱河日記中에 보이는바 唐太宗이 天下兵을 움주여 彈丸小城에 뜻을엇지못하고 蒼皇히班師한것은 그跡이 可疑하다고 燕岩도 말하엿다。

寒嵒의 夜宿九連城詩는 비록安市城市와 直接關係는업스나 또한 豪健悲涼하야 可誦할만하니
臥念遼陽萬里中。山河今古幾英雄。樹連李勣營前月。雲暗東明廟上宮。戰伐飛騰流水盡。漁樵閒寄夕陽空。歸歌出塞歌詞[illegible]。頭白書生月偏風。
金雲養(允植)이 일즉 選使로 天津에 赴任하는 途中에 安市城을 지내다가 懷古의一絶을 賦하야갈오되
孤城當日抗唐師。帥去千載事可悲。千古無人解遺恨。功成祗爲莫離支。
이莫離支는 蓋蘇文을 가르친것이니 安市城主楊萬春이 드러내인 功이 蓋蘇文의 功으로 돌아가고 말앗다하는 不滿이 이詩에 나타낫다。唐將蘇定方을 비롯하야 그 唐太宗의 三子가 아즉 莫離支에게 依하야 作用하엿다。
그러나 雲養의 安市城詩에 對하야 적이 疑惑이 업지못하다 彼我를 混同한것이다。
× × ×

知性擁護의 根本精神

―知的協力國際協會談話會報告― (5)

崔載瑞

前回談話에잇서 許多한混亂이 잇섯슴에도不拘하고 단한가지 밝혀진것은 그들이 民衆의指導者로서 理智人을擇햇다는點이다。技術問題로드러가면 아직도漠然하지만 엇잿든 社會의運轉을 少數理智人에게 맛기자고하는데잇서선 그들은一致하얏다。심지어 『푸라톤』의『共和國』을引用하야 哲人政治를力說하사람조차잇섯다。이러하야 그들은 위선 選別된者의文化와 全體의文化를區別하야가지고 出發하얏다。

그러나 指導者는 結局民衆속에서나오는것이 아니고 그文化는民衆의文化와區別할수업는것을 그들은깨닷게되엿다。따라서 國家가할일은 民衆속으로부터 少數指導者가나오는것을 助力하야주고 더나가서는 全體의文化를 向上식힘만한 施政을할것이라고 規定하얏다 그러나 歐羅巴今日의情勢는 엇더하냐? 그것은 만의書翰이 잘指摘하디시피 그들의所願과는 全然背馳되는方向을 뿜하고잇다。그들은 理智人대신에 英雄을讚美하고 教育대신에 宣傳으로써民衆을指導하고 眞理대신에 神話를말한다。

人間知性을 原始時代로 돌려보낸 이現代의威力에 對抗하야 이곳에모인 理智人들은 무엇을 主張하엿는가? 그것은 휴ー매니즘이다『오레스타노』『氏나』『바카레스코』女史모양으로 宗敎와 愛를力說한 代表도잇섯지만 이것은 어언간黙殺되고 휴ー매니즘과神話의 關係가 愼重히檢討되엿다。開會劈頭에『바레리』議長은『우리들의 푸로그람의第三問ー그것은 非理性主義와 教習와의比例를차자내고 그限界를決定하는데에 成立되는 新휴ー매니즘의定義에 關한것입니다』는 勿論그들은 大學講堂에서 와마찬가지로 휴ー매니즘의語句解釋은하지안엇다。그대신그들은그들의談話全體에엇서서 휴ー매니즘의精神을 宣揚하얏다。現代를 風靡하는 非理性主義에 對하야 人間의知性을 빗내게하고 政治民主主義的神話와 暗示에盲動하는 民衆을 排斥하고 叡智의蓄積인 文學 藝術 其他모든 文化의傳統을 擁護하랴고하얏다。이것은 무엇보다도 雄辯한 휴ー매니즘의定義이다。여기에 또한가지빠진것이잇다 그것은 人間의調和的發達이다。

×

以上으로써 簡單하나마 紹介를맛처다。여기서 結論삼아 한마디 말할必要를 늣긴다。그것은 問題가多端하고 議論이 多岐하엿기때문이다。

『토마스·만』의 激烈한公開狀으로부터 始作되는 이談話會는知性의擁護를 目的으로하는 會合이엿다。巴里의 文化擁護作家大會에比하면 그規模는 적을망정 그精神과 使命에 잇서선 똑가튼것이다。『가렐·차페크』는 閉會劈頭에 다음과가티 宣言하엿다。

『眞ー 우리들이 무엇이나를擁護하기爲하야 이곳에 召集되엿다면 그것은確實히 人間의精神的價値를 擁護하기爲하여서이다 우리들이 瀕滅하고잇는 重大한 危機에 際하야 現代의教養잇는 人間의 知的 道德的 保全이無視될것을 許諾지안는것ー그것이 우리들의 社會的職責이다。』

그리고 最後로 우리는 이會의 使命이『바레리』議長이 말한바와가티 무슨 政治的決議를 企圖함이아니라 各代表가 自由롭게 意見을 發表하야 指導者에게 反省의 機會를주고도必要한때엔 勸告을줌에잇다는것을이저서는 아니되겟다。

그러나 他方에잇서선 知性의 擁護만을가지고 知性擁護조차 바랄수업는 現狀이다。一例를들면 大衆에게 어떠케하면 最少限度의 教養이나마 줄수잇느냐하는 問題이다。이根本問題에『줄레스』氏는 몃번이나 敎育의 重要를 喚起하엿것만 이것은 너무도 問題가 컷는때문인지 아모도 對答치안햇다。 (끗)

漢拏山巡禮記

海·岸·線·行·脚 ㉕

雙白虹의天池瀑

―南國의情趣、柑橘의故事―

李殷相

배를저어 浦口안으로돌아온 우리는 다시 西으로 五里許에 잇는 天池瀑을찾기로한다。天池瀑온 西歸浦의 海口로흘러나리는 洪爐川 洞谷에 잇는瀑로 洪爐川은 지금地圖에 淵外川이라 表示되어잇다。銀口魚며 鮎鱧等 魚類가 만히나는곳이라 언제나 洞裏漁夫가 끈히지안는 洪爐川에는 오늘도 벌서 數三河童이 손바닥만한 그물을쥐고 물속에 돌어섯다。

奇絕한 巖石을 줄기면서 휘우듬히 돌아드니 洞門이 가까워지자 물엇는 소리가 문득귀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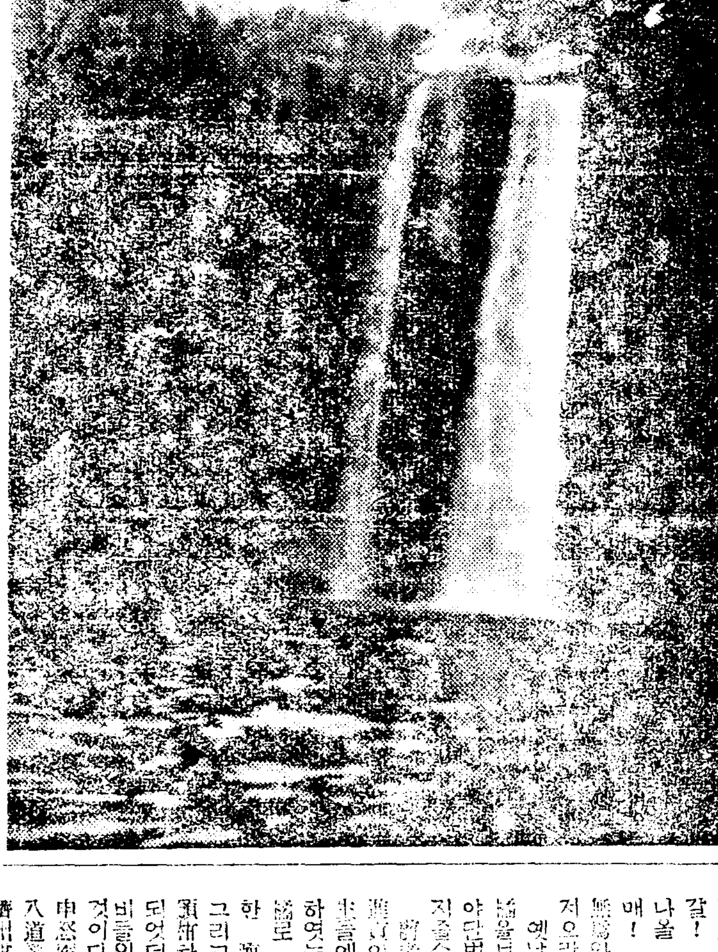
金淸陰의 南槎錄에『瀑雪飛數里』라하말은 어느度까지 誇張的이라고는 하겟스나 瀑高七十二尺의 雙瀑이 떨어지는곳이라 그소리가 멀리까지 돌리는것만은 事實이다。

그리고『南道白虹附飮天釜』라한 描寫는 아름다운채로 適切한 好句라하려니와 淸陰이 天池瀑을 쓰며、이가티 瀑布만보고 瀑布周圍의 景觀에는 言及치아니한것이 遺憾이다。左右岩屛에는 여름인채로 秋橘冬栢이 서로 팔을겻고잇는놈、등을지고잇는놈에 짓자해야 지어질 이름업는 草花가 새눈처럼 박혓는데 그틈진곳이라인제야 아츰햇빗채 반작이고잇다。

발부칠곳업는 常綠樹의間隙이 瀑布를에워싼채로 노픈허리를 꾸부려 제얼굴을 못속에 잠잣고 無然하 新凉의 瞰가 잇슴은 날이맛도록 사랑잡직하다。

景觀이 이러하고야 이름인들 함부로 지을것이랴。天池瀑이란이름은 어제 지나온天帝淵과 아울러 尋常詞客따위의 敢作이 아닐것은 毋論이다。

이이름의由來ー반듯이 오랜歷史를 가젓슬것이오 또그歷史의 母胎根器이 한놀宗拜의 古俗에 잇슬것이어니와 여기 何等의 人爲遺跡이 업는 그대로 오히려 太古의 靜寂을 자랑하는곳에 無事 無聞 이것이『하늘』의 根本義를바로보힘이오 樸訥한 本性本態를 더럽힘업시 나타냄이 아니겟느냐。뷘몸으로 와서 뷘손모으고 안젓다가 섯다가 자취업시 뷘몸으로 돌아간곳에 더욱 神聖한 古意가傷하지안흥이니 우리도 발자국조차업시 깨끗이 돌아가야 올흘것이다。



이름의 거룩함과 [illegible] 羅함을 고맙게보고 늣겨 [illegible] 각하면서 빌길을 돌린다。

李源祚의 詩에

水抱山回又一灣
西歸東北數峯間
雙黃甲乙休題品
一日能看兩瀑還

이라한것은 詩라기보다 路程記錄이라하려니와、海邊의正房 淵谷의 天池瀑이 甲乙[illegible] 수업는 勝景이 아닐수 [illegible] 두개의 버릴수업다。

우리는 다시 自動車에 올라 東으로 東으로 달리는길이다。

철이 萬一 가을이엇드면西歸浦의 名物인 洪爐川上 西烘里의 柑橘園을 차젓슬것이나 지금은 茂盛한 입사귀뿐일것이라 우리의 柑橘印象을 [illegible] 오히려 안겨 [illegible] 향출알아 바라만보고 생각만하고 그냥지난다。

現在 이곳의 特產인 이柑橘에는 雲州 네블 夏橘 킹강等 確期이잇서 여기서만도 年產額一萬圓以上이라함을 들으면、島民의 生活開拓을 爲하야서 이 柑橘栽培가 어떠케나結果한지를 알겟다。

생각할수록 그리운 柑橘의 香氣! 그리고 그 旂旒的인빗갈! 南國의詩와 노래가흘러나올 그 주리주리 달리는열매! 想像만하여도 아츰부터 無窮화 南國의 달콤한꿈이 차저오라한다。

예날사람이 저陸地에서 柑橘을보고는 금인이나 나븐이 아닌법석을 하던일도 決코 꾸지즐수업는일이라 하겟다。

濟州에 서울로 濟州의 柑橘을進上이가면 太學과 四學의 儒生들에게 『黃柑製』라는것을 行하엿는데 이柑製라는것은 柑橘로 말미암아 열리는 詩祭한 黃柑製의 特名이엇다。

그리고 그뒤에는 儒生들에게 頒賜하는것이 李朝의 慣例가 되어던것이어니와 柑橘잇는선비들의 可히 한족한일이라할것이다。

申叔舟의詩에

八道爭傳貢日至
濟州柑橘二番來

라한것이 잇슴은 應當 冬日에 禁中의일을 쓴것이려니와 實在柑이 冬日에 오는때면 上이 親見하시고 賜衣宣醞하야 멀리온사람을 慰柔하는것이엇다。

時代는 비록 지나갓슬지라도 柑製의舊故만은 선비사이에 다시잇게할도 조켓다하면서 압길을 재촉한다。

(사진은 天池瀑)

鍊金欄

作家의 視野

一步生

文壇圈外에서 뭇는말은慣當朝鮮作家의눈이 좁다는것이다 貧弱을 그리되 朝鮮人이當하는바 貧弱의 그社會的背景을보지안코 放棄的인 롬펜이될리의 困窮相밧게 나가저 못하고 또 戀愛를 그리되 그風潮的인 余體性에서의 一角을 끄리지못하고 千篇一律的三角關係에서 못이며나가지 못한다는것이 그들非難의 한가지다 그뿐안이라 國際舞臺로한 作品이 거이업는것은 크게遺憾할일이라고 事實에잇서서 朝鮮의作家는 視野가 넓지못한것은두구나 늣기는바이지만 到底서 이러非難攻擊이 마作家로서 한번反省할일이 넘겨한다。勿論여기는 經濟的으로 經驗으로 또教養여러가지 不利한 環境에 基因한것이지만 이것을 自己스스로넷기지도 못하고 또 井中之蛙의 快樂으로 滿足을 늣기는사람이잇다면 이는벌서 作家로서의 資格을 喪失햇다고볼수잇다 나는文藝에실렷든 勝野氏의『모스크바』를읽고 모스크바를舞臺로한 作品이 [illegible] 不足한곳김이잇섯스나 國際的으로 舞臺를 삶고 거기 自國人의 生活을 題材로하야 쓸것인만큼 나는 作家의 視野를넓히는點에 잇서서 그런 作品은 한價値를 發見하는것이다

떠구나 파ー브렌코의『極東에서』가튼作品은 그의커ー다란스케일과 넓은視野에는 다시우리들作家의 修鍊이不足한데 赤面할일이다。

× × ×

◆三曲線 (現代朝鮮長篇小說全集第八卷) 張赫宙作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一圓五十錢 送料十五錢

科學

特殊한分布를이루는 濟州의植物 ③

鮮于起

8坪當里
榧子林(カヤ林)이 잇스니 入口에『乙種國有林四十五町步學術參考樹林』이라는 木標가서잇다。榧子樹의果實은 條虫驅除藥으로 너무도有名하며 材는堅固하나棒般 算盤等用材가된다。樹齡은 數百年을經하엿슬것이며 相當한大木이니 一株쯤垂涎하시든 甚客도업지안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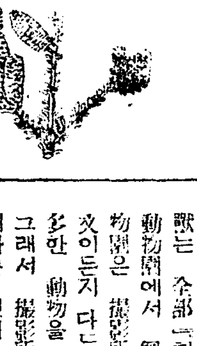
林間에는 カナクギノキ イボタノキ イヌザンセフ ネムノキ等 ヌマダイコン アカメガシハ等 マメヅタ ビロウドシダ 蘚類等 等蔭地植物 ビニボウカヅラ ウマノスズクサ エビカヅラ シホデ サルトリイバラ スヒカヅラ ナツヅタ オホツヅラフヂ センニンサウ等 蔓生植物이 엉클어저잇다。歸路金寧附近서는 防風堤에 ポプラ林이 잇스니 輸入移植되지三四十年을 지녀지못하엿슬것이다

三、漢拏山登山途中狀況

1、濟州邑觀音寺周邊林
路傍에 メイヂグサ アレヂアザミ シラカハボウフウ ヤブジラミ クララ等 白花草本과 ノハラアザミ ウツボグサ等 赤花草가우슴을띄우고 잇스니 아마 無心한人士들은 關心事가 아니리라 道傍에 桑栗 松苗等을 遺林 賊으로家用으로 耕牌한곳도 잇다。

高嶺한處는 牛馬가 함부로 來往하야 樹木이 불것업고 고사리(蕨)만이 全勢力으로 群生하엿고 高山蝶類가 紛紛飛去하니 참 悠久長大한氣分이다。溪谷地에는 牛馬의侵犯을 免하야 僅僅樹木이 殘存하니 サイシウイヌエンジユ 楓葉 ヤマボウシ等 白花 ネムノキ紫花가 눈을끌고 잇다 그러나 此濟州邑觀音寺周邊은 樵夫의寢在 牛馬의放飼이 업엇드면 濟州島寺附近의大森林을 이루엇슬것이다만은 現今은荒廢이지만 그보다는 볼수가업다

2、觀音寺。標項。고대밧圃(溫帶林)
觀音寺後側 數十町步는 아조 牛馬가 사람을 두려워도 안하고 그러워도안하고 제멋대로求食이라는 本能性만을 發揮하고잇다。灌木[illegible]가 미처서부터는 密林이 되기始作하니 林前은 日中不暗하며 日中寄夜의感이잇다。コナラ イヌシデ エゴ ウシコロシ サンセフ アハブキ シラキ オカメノキ コブシ サハシバ ガマズミ 로부터 アカシデ サイシウミヅナラ(서레낭ㅅ나무의一種) ハリギリ ナナカマド [illegible] シウイヌエンジユ



アヅキナシ カヘデ類 櫻類等 多種 多樣의 樹木이 茂盛하엿다 樹上 에는 ヤドリギ 蘇類가 着生하고 イハガラミ ゴトウヅル ミヤマタタビ サルナシ テフセンヤコブドウ ワルニンジン等 蔓繞 植物이 蔓生하고 樹下에는 カンアフヒ カタバミ ミヤマウヅラ ヂガバチサウ サイシウエビネ ナンザンスミレ チゴユク等이잇다 上述한 樹木中에서 레낭(サイシウミヅナラ)은 椎茸의母木이 되는 것이니 イヌシデ アカシデ コナラ等도 代用이되는데 山田處處에 小屋이 잇는것은 寶로 椎茸栽木의古株를 利用하야 椎茸栽培를 하는곳이다

漢詩募集

題 秋夕
押 明
期 九月十五日

演藝와娛樂

『팬』들의 話題

◇…動物의出演料金◇
◇…人氣俳優의席次◇
◇…典型的 스타ー?◇

『巨人고ー렘』이라는 作品을 보아서도 알일이지 마는 『쥬리앙、듀비에』가튼 監督도『라이온』만은 마음대로 부리지못하엿는지 그驅使한者리』이 엿보이는데가잇다。본래 猛獸를 驅使하는데는 歐洲映畵보담 米國映畵가 더능란한것만은 事實이지만。

米國映畵에서 使用하는 猛獸는 全部『허리웃드』近處의 動物園에서 飼育하는데 이動物園은 撮影所의 엇더한 注文이든지 다드를수잇슬만큼 雜多한 動物을 飼育하고잇다。그래서 撮影所의 注文이잇슬때마다 엇더한動物이든지 마치 移動서ー커스와가티 即時에 移送할수잇도록되여잇다。그러니까 말하자면 動物엑스트라의 集團과 비슷한것이다。

그리고 動物의 種類만 만흘뿐아니라 個個의 數가 만키로도 世界的이여서 例하면、『라이온』만이 二四〇頭 범이 七五頭 駱駝가 二五頭 뱀이 數百匹 其他가 數千匹이나된다 그러니까 엇더한 大量注文이 잇드래도 洪코 供給이 不足할憂慮는업다。

그러면 이러한 動物엑스트라의 給料는 엇더케되느냐하면 지금까지의 記錄으로서는 單가 最高인데 일직이 撮影所로부터 注文이잇서서 給料를 一萬弗이나 바든일이잇다고한다 『라이온』一日二五弗 乃至一〇〇弗 訓練된象 五〇弗 乃至一五〇弗 鮫魚五〇弗 鰐魚二五弗 蛇五〇弗 鸚鵡 鳥 羊 豚類는 아모리 幹部級이라도 一日一弗밧게안된다고한다。

× × ×

米國의『스크린·뿍』이라고하는 映畵雜誌가 最近의 人氣投票를한結果 다음과 갓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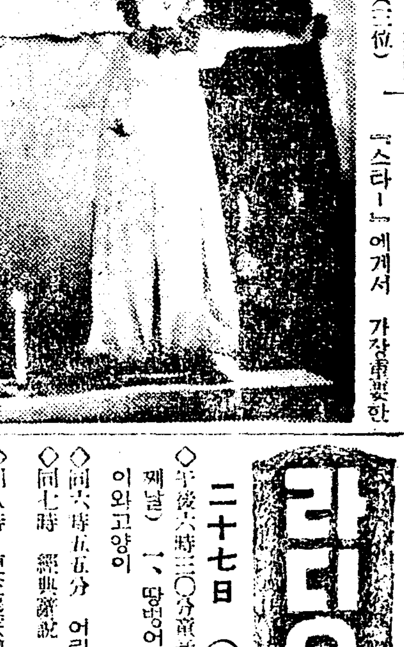
『로버ー트·테일러ー』 一〇〇〇票 (一位)
『크라ー크·게ー불』 八七〇票 (二位)
『쇠ー리·템플』 八〇三票 (三位)
『윌리암·포ー웰』 四五四票 (四位)
『크로ー데트、콜벨』 四二五票 (五位)
『그레타·갈보』 四[illegible]票 (六位)
『넬손、에디ー』 四一七票 (七位)
『죤、크로포ー드』 四〇五票 (八位)
『진자ー、로저ー스』 四〇二票 (九位)
『마ー나、로이』 三九四票 (十位)
等이라고한다。

× × ×

『스타ー』에게서 가장重要한것은 무엇인가?美인가?演技인가?그러치 안흐면 個性인가? 이러한 問題는 여러사람의 意見이 다 다를것갓지마는 最近『허ー리웃드』의 著名監督十五人의 意見을 綜合해보면 다음과가튼 解決을엇는다고한다。

一、技藝의 情熱ー三〇%(아모리 훌륭한個性의 所有者이며 또는 演技의大分이 넉넉하드래도 技藝에對한 情熱이업스면 그것은 何等의 效果를 나타내지못하는 때문에)
二、希望ー二〇%(希望이 업시는 生存도할수업는것가티 希望은 모든일에 歡喜를 주는것이다。)
三、個性ー二〇%(이것은 사람을 끄으는最大의武器이다)
四、教養ー二〇%(教養은演技에의理解와 人間的인 기피를 주는것이다)
五、美ー一〇%

以上을 合計해서 비로소一〇〇%의『스타ー』가된다고하니容易한일은 아니다。



(寫眞은 템플)

艷香林 ②

永遠의處女 시몬느·시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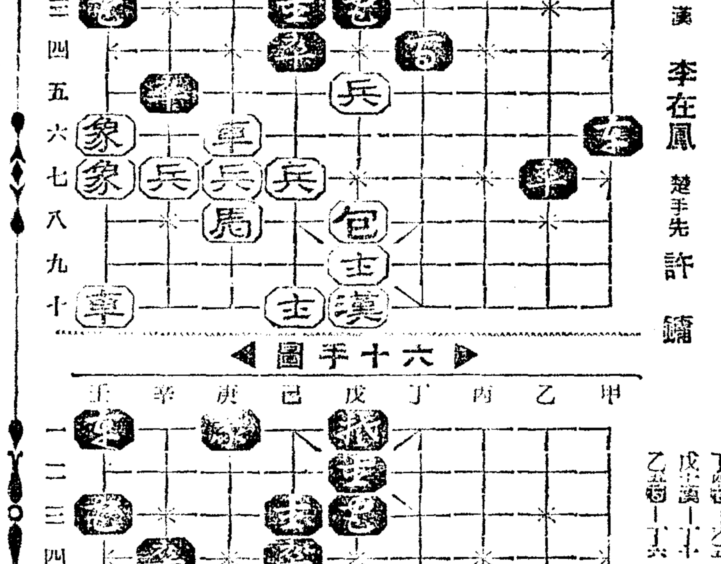
『시모ー느·시ー몬』의 머리결은 구름장가치 퍼젓습니다 그밋헤 넓적한 이마、[illegible] 想像보담도 더明朗한데다가유달니 속눈섭이 기러서 푸른눈동자는 깁흔줌속의 湖水와가치 맑고、깨끗하고ー 속마음으로는 기피기피무엇을 생각하는지 굿게 담으린 아래 웃넙술에는 微笑의 그림자는 느진봄 가을바람결갓치 畫面에서살어지지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黑衣의湖水』『경른풍차』가튼 名畫에나오는『시ー모느·시ー몬』의 面影은 어느하나할것업시 純情과 憧憬에채인 永遠의 處女아닌것이업거니 우리는 이 畫面만을 보면서도 새로히 高潔한感情을 느끼는것은 決코偶然한일이아닐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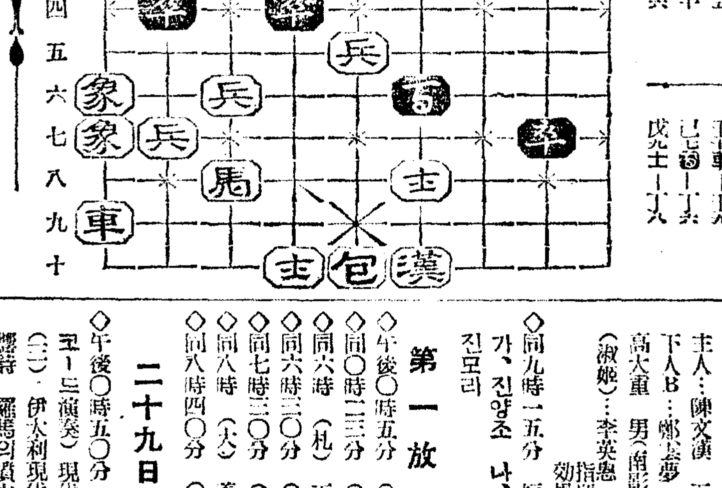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六)

漢 李在鳳 楚手先 許鏞

◀圖手十五▶



◀圖手十六▶



甲六包ー庚六打車　戊八包ー戊十
庚七兵ー庚六打車　丁四包ー己四打兵
丁四包ー乙五　壬七車ー壬九
戊七漢ー丁十　己七包ー丁六
乙五包ー丁六　戊九士ー丁八

라듸오

二十七日 (金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의저녁(물재낭) 一、땅땅어리 二、삽살이와고양이 金福鎭 仁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金奉鎬
◇同七時 經典講說 忍等波羅蜜 朴允進
◇同八時 更生農家體驗談(第三回) 一、斗溪洞의更生體驗談、江原道 李在舜 一、夫婦共助하야更生한體驗談…忠淸南道許禎
◇同八時三〇分 軍歌工夫…鈴美合唱團 敵은幾萬 指導 李鍾泰

二十八日 (土曜)

◇午前一一時一五分 家庭時間『讀書로消暑를합시다』 井 坐 相
◇午後零時五分 軍歌(레코ー드演奏) 一、日本陸軍軍歌集(陸軍戶山學校軍樂隊及合唱隊) 二、軍艦行進曲…(東海林太郎) 三、黃海大捷…(永田絃次郎) 四、敵陣갓가히…(近衛八郞) 五、새벽의戰鬪에…(井口小夜子) 六、航空愛國歌…(中野忠晴)
◇同六時三〇分(平) 하와이안키타ー二重奏 一、홈·스위트홈 二、푸른하늘 三、올드·블랙·죠ー 五、미레하하의瀑布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南宮堯 邊承祐
◇同七時 講演『家庭生活에對하야』 金守鉉
◇同八時 趣味講演『海洋과詩歌』 異華雲
◇同八時三〇分 軍歌工夫 鈴美合唱團『敵은幾萬』 指導 李鍾泰
◇同八時四〇分 라듸오드라마『그날밤』全一景 配役 族錦 主人…陳文演 下人A…車日光 下人B…鄭志夢 客(金主事)…高大衆 男(南影)…南女樹 女(淑姬)…李英惠 指揮 朱 效果 馬 放送劇協會
◇同九時一五分 短簫獨奏 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姜奉根
◇同八時四〇分 雅樂ー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ー 一、細樂 [illegible]
◇同九時五分 獨唱 一、洪水…버ー드作曲 二、님의그림자 三、바다에서 四、歌劇『토스카』中에서…푸치니作曲 五、기다림…밀라드作曲 六、마침내·아·내사랑은…글록크作曲 李仁範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 만도링合奏
◇同六時卅分(參) 夏休思出
◇同七時卅分(東) 管絃樂
◇同八時(東) 箏曲
◇同八時二十五分(大) 浪花節
◇同九時(東) 時事解說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家庭콩트
◇同〇時三三分(東) 國民歌謠
◇同六時(札) 天然物
◇同六時三〇分(東) 童謠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大) 義太夫
◇同八時四〇分(東) 演劇三夜

二十九日 (日曜)

◇午後〇時五〇分 名曲鑑賞(레코ー드演奏) 現代音樂의鳥瞰 (三)伊太利現代音樂 一、交響詩 羅馬의噴水…레스피ー기作曲 二、室內樂 絃樂四重奏曲長調…리에띠作曲 三、管絃樂『스산나의秘密』序曲…페라ー리作曲 解說 金管
◇同六時三〇分 獨唱과二重唱 一、獨唱 소금쟁이(金顯赤) 二、同 빗방울(同) 三、同 도적쥐(同) 四、同 바람(同) 五、同 새떼(同) 六、二重唱 꾀꼬리 七、獨唱 胡蝶(金顯珠) 八、同 제비남매(同) 九、同 흥으른시내(同) 十、齊唱 돌나리 金顯赤 金顯珠 피아노伴奏 諸鼎子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同八時 一、새打鈴 二、六字백이 安寅植
◇同八時二〇分 古談『熱水一瓢』 曹弄仙
◇同八時五〇分 一、유산가 二、선유가 三、제비가 李雲林 申海中 洪笑月
◇同九時一〇分(東) 피아노獨奏 一、三十二의變奏曲 C短調…베ー토ー벤作曲 宋孝二

第一放送
◇午後一時 社會見學(上連)
◇同六時三〇分(東) 童話
◇同七時三〇分(大) 國民歌謠
◇同八時(東) 演劇三夜
◇同九時一〇分(東) 피아노獨奏

八月二十六日부터三日間 新興키네마東京撮影所超特作 大業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新興키네마東京撮影所超特作 現代名篇 新婦學校 霧立のぼる 立松晃 主演
◆新興키네마東京特作映畫 歌川八重子 江川宇禮雄 主演
現代名篇 心の波止場 小杉勇 花井蘭子 主演
人生의不幸이나요 名探偵 ◆大活劇 [illegible]
黃金町 光武劇場

明治座
26·27日 時間表 (名畫短期週) 2日間

	1	2	3
朝日ニユース	11·30—11·40	3·00—3·10	7·00—7·10
テンプルの燈台守	11·42—12·58	3·12—4·28	7·12—8·28
京日ニユース	1·03—1·18	4·33—4·48	8·33—8·48
淑女何を忘れたか	1·20—2·32	4·50—6·02	8·50—10·02

八月廿六日부터 特別興行 每日三回 午后一時半、六時半
潛水艦SOS 全八卷 海洋大人情戀愛大冒險大活劇!! 主演 리카ー드로레스 제스다보리쓰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版!! 大活劇西部 怪盜黑頭巾 全七卷
◇極東映畫社超特作品 時代劇 血祭天龍川 全九卷 監督 山田[illegible]
京城新堂町 光二一七〇番 新富座

八月二十七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全日本輿論待望의松竹文藝巨篇 封切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
松竹大船超大作 現代文藝劇 朱と綠 前後篇大會 原作 久米正雄 監督 島津保次郞 佐分利信、上原謙、高峰三枝子
新興키네마 愛怨峽 사랑과怨恨의두갈을밟는한女性 溝口健二監督 山路ふみ子 河津淸三郞主演
네개의戀愛 네女性이엇는사랑의가지가지
朝日世界뉴ー스 讀賣發聲뉴ー스 東日大每國際뉴ー스
團成社

猛獸大活劇 巨匠監督 密林의女王 共演 월리암·월슨 메이·아리곤 리ー드·호우스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部版

仁川在留支那人의 爲替法違反者續出
總督府의許可업시每月三萬圓以上取引
最近綻露되어帳簿押收嚴調

【仁川】지난이십일에 총독부관보발표된 외국위체관리법을 준하야 인천제물포지나인의 위반이 속속발견되야 인천서에서는 미생정(彌生町) 삼성상회(三盛商會) 인합동(仁合東)등의 장부를 압수하야 방금 엄중조사중이라는데 동관리법의 내용을보건대 외국인으로서 조선내에서 매월 평균 취인고(取引高)가 삼만원을 초과할때에는 총독부의 허가를 요하는것을 무허가로 이미 취인한 혐의라는데 이는 인천에잇는 지나인들에대한 미틀 된 부채를 시국과 한가지 조사하든중에 발견된것이라는데 사건은 어데까지 확대될지 주목되는바이라한다

洪□郡의 最初의□

【洪川】지난이십일일□ 홍천군회의실에서는군내 각과학교장각주재소수석 지□ 려자가 다수참석하야 시국에대한 제인식을 철저히하기위하야 …… 공일인에대 …… 헌납하고 위 …… 로하엿스며 관 …… 일명에대하야 …… 상을 헌납하야 청 …… 려부려 군기를헌납하기

產婆講演會開催

【文石】지난이십사일 오후칠시부터 기독교조선감리회지석교회 교육관내(基督教朝鮮監理會文石敎會敎育館內)에서 일반부녀자들에게 임부(姙婦)에관한강연이잇섯는대 연제는대개아래와갓다

一、出産前後期의 注意와治療法
一、月經不順의 原因과簡易療法

기타출산기에대한상식을보급식히고저 지석부인회주최로 강사 김영화(金英華)씨를 초빙하여 대성황리에산회하엿는데 일반부녀들에게는 큰도움이되리라 고잇는다

甘蔗知事廣州巡視

【廣州】감자경기도지사는 지난이십팔일오전아홉시반경 관민다수출영리에 광주군청에 도착하야 일반유지를접견하고 계속하야 군회의실에서 군직원에대하야 일장훈시를 한후리천(利川)방면을향하야 출발하엿다

동십일시삼십분까지 약두시간동안씩 수업하얏는바 일반지방유지들이 감사히생각함은 물론이어니와 배움에주린 아동들에게 다대한 유익을주엇스며 전에몰수업는 일백삼십오명이라는 재학생과、사십팔명의 수업생다수의 안동이참집하야 대성황으로 마치엇다하며 장시일을 하로가티 교편을잡은분은 다음과갓다

劉根洙 李鍾京 任澤漢 池昌玉 嚴世和 洪建杓 裵學俊 盧李七 金春洪 朴明熙

(寫眞은 洪川第十回夏季兒童聖經學校記念撮影)

常時管制不徹底로 醜態百出水原邑
夜間엔店頭에外燈을키고 싸이렌으로正午時報

【水原】지난이십오일 경성요지방위사령관이 동회상시관제를포고하야 이십칠일오후칠시반부터 수원시내에도 동회상시 관제를 실행하게되엿는데 수원읍에서는 이번 상시관제에 등화관제만이 아니고 음향관제도 잇는것을몰으고 이십칠일정오에 시보로싸이렌을 울린일이잇서서 일반시민은 깜작놀낫다한다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이십일일 경계관제 당시에도 매원방장은 일반방호단원에게 지시를잘못하야 수원시내는 공습관제로되며 각상점은부득이폐문을하야손해를피하엿고 일반시민은 엇더한영문인지 알지를 못하야 자못불안한 마음으로 수시간을 보내엿는데이번에는 싸이렌을 부러서주민을놀내게하니 금후에는 미들수가 업다고 이십칠일밤 상시관제시에 모배화점주인은 문등을끄지안코 도려나간 방호단원에게항의를하엿다한다

洪川에警備電話
各駐在所에完成在邇
一萬二千七百圓의巨額으로

【洪川】약진홍천에 경보망의불비로인하야 일반이유감으로 생각하야오든바 더욱현하일지사변이 의외에확대함을따라 일각을다투워 원격한 편협각주재소와 민첩한연락을취하고저 홍천경찰서에서는 장시일에 극력주선하야 금후일개월이면 완성을보게되다하며 벌서일만이천칠백원이라는 거대한 기부금도모집되야 총공사도 착착진행중이라하고 서면을제외한 이십이리에선 한거리에 일만오천원이라는 다대한 공비를 던지엇다한다

洪川國防獻金

【洪川】지난십사일 이후로전수된 홍천의국방헌금은 다음과갓다

鄭永寶外二十三名十六圓五十錢 北方面上花溪里婦人會崔雲外卄名二十七圓廿五錢 李末福十圓 德興館十圓 朝鮮新聞十六圓九十錢 瑞石面豐岩里金萬外千十名四圓五十五錢 北方面金谷十五名廿五圓 東面開雲里粲五圓 龍燒烈廿圓 乃村面一同十七圓五十錢 南面兒童一同三圓十五錢 西面區長六圓 郡廳職員一同五圓七十錢 □□一同三圓四□ □所長外二□長一同五圓五十錢 鄭日昇一圓 사라시絹一疋 南面新盛里李恒洙外一同五圓 南面花田里佐藤潤一二圓五十錢 千葉正男一圓 瑞石面儉山里李建英外二七三人七十七圓四十五錢 乃村面物傑里吏相勳一圓 申泰貞十圓 柵田滋十五圓 朴奎三卅圓 李淳和十圓 洪川儒林會一同二十圓 朴時東卅圓

夏季兒童聖經學校

【洪川】지난이일부터 홍천읍교회에서는 제십회하기아동성경학교를 례년과가티 개최하엿다는바 금년과가튼 혹서임에도불구하고

九月利益金一割을 獻納하기로決定
永登浦煙草小賣人總會서

【永登浦】경성부영등포연초판매소(專賣局永登浦煙草販賣所)에서는 이십칠일오후이시부터 영등포연예관(演藝館)에서 우량소매인표창식을 거행하엿는데 그석상에서 황거요배, 전사황군의령에묵도 국장고사 수상자대표답사 래빈축사가잇슨후 소매인리태영(□泰榮)씨의동의로과내이백여인의조소매인이 구월중매상리익금에대한 일할에상당한금액을 국방금으로헌납하자는결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엿다고한다● 그리고 표창을바든우량소매인은 아래와갓다

果川面官門里鄭景化 西二面安養里□□□ 彦州面論峴里李春敬 京城本洞町金孝星 京城新吉町三輪市郎左衛門

煙草優良小賣人表彰

【江華】강화군내 재삼회우량연초판매인표창식은 이십칠일오후한시부터 강화읍공보교강당내에서 거행하얏는바 협회지부장최룡희(協會支部長崔龍希)씨의 간곡한개회사와 이에표창장수여와 래빈의축사 수상자의 답사가끗난후 동협회사무소에서 간단한 연회가잇서 주객가환담이잇섯는데 당일수상자는 다음과갓다

上防里金俊煥 蘭井里裵寅正 神井里尹福順 大山里崔龍根 聖月里尹根

有識者를派遣
非常時局懇談

【春川】북지사변으로 일반민심이흥분한데 련하야 상해사변이 돌발하야 예상이상으로 급격한 전개를 보이게된바 당국은비상시에 만전을기하도록 노력에급급하며 강원도에서도 이십팔일부터 전도각군에 도간부는물론 중추원참의 기타식자들을파견하야 시국간담회를 개최하게되엿다고한다

支那가는唯一汽船 共同丸도就航中止
仁川에서大連까지는가나警護艦업서서
歸路를일은二千五百餘名

【仁川】인천부내에는귀국하랴고 모혀든 지나귀환자가 오천명이나초과하야, 인천지나가는 그야말로 문자그대로의 인산인해를 일우우고잇다함은 루차보도한바와갓거니와 지난이십오일리통호(利通號)는선창을 인천에나리운채 귀환민이천칠백명을실고 지푸(芝罘)로무사상륙하얏다는 통지까지잇섯스나 그후에지나를향하야 귀환민구십구명을실고 떠난 회령환(會寧丸)은 대련(大連)까지는 기항(寄港)하엿스나시국이험한관계로 청도(靑島)에까지기항치못하고 피난민을실은채 할수업시인천으로 귀항하야 가랴든그들은 인천에나리고말엇다는데 현재인천체류지나인은약 이천오백명에달하야 귀국할방도로는 아파기선회사(阿波汽船會社)공동환(共同丸)을 리용하라고 하엿스나 공동환은 어느지점에 체류하여잇는지 지점조차알길이 업고 설영안다하야도 경호하는 군함이업시는 취항치안켓다하며 리통호(利通號)도 이로써취항을 정지하고잇서 대지항로로는 오즉인천과 대련뿐만이 인천부두에방황하는 □망의 지나귀환민의 갈곳이엉 느맨지그 압길이막연하야 가장우려되는바이라한다

001094

永登浦敦岩町以後엔 大峴町區劃整理
明春에着手、十五年에完了되면
理想的住宅地出現

경성부도시계획계(都市計劃係)에서는 방금영등포(永登浦) 돈암정(敦岩町)등곳의 구획정리사업을 진행중인데 계속하야 명년봄부터는 대현정(大峴町)에약 오십만평의 구획정리에 착수하야 소화십오년도에 완성할예정이라한다 이것이 완성되는때에는 서부경성에 리상적신흥주택촌이출현하게될터이다

注文마튼洗濯物을 典當잡혀豪遊
自轉車十一臺도窃取

【楊州】양주군별내면 청학리(淸鶴里) 박춘석(朴春石)(二○)은 경성모세탁점외교원입바 기라세탁물을 주문맛터서는전당포에 입질하야 그돈으로 유곽에 출입하야 랑비하고 또경성, 인천등지로다니며 닥치는대로 절취한자전거만 십일대라하며 기회로 각처로다니며 오ー는데 그외에도 여죄가잇는듯하야 방금양주경찰서에서는 엄중취조중이라한다

歸還支那人殺到로 제철맛난赤帽群
上下仁川驛에서每日세가나
收入은平年의四五倍

【仁川】작금인천과상인천양역에는 지나피난민이 매일평균일천삼사백명이나 살도하야 매일가티나리고잇서 도저히현역홍인구로는 전부수용할수업게되야 사람의 출입이어려운만큼 수하물의 운반은말할것도업슴으로 돈쓰지안키로 유명한 지나인일망정 할수업시 그들은수하물을인천역에잇는〃아까보〃(赤帽)에게 의뢰치안을수업서 그들의수입은 매일 평균오원내지 십여원에달하야 평년수입에 약사오배나달한다는 톳기에도 풍성풍성하야 그들의 시절을맛난듯한 풍경의 한토막이라한다

五人組樂器寄贈
洪川基督敎會에

【洪川】지난십오일아침 홍천읍진리(洪川郡洪川邑鎭里)리기석(李基碩)(二□)군은 시가이백여원의 오인조악기전부를 홍천기독교회에 기증하겟다는뜻을전하야 교회에서는 군의가특한처사에 감사히여임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인사들이 칭찬하야마지 안는다

溫水의支那人歸還

【溫水】북지사변이각일각으로험악하여감을따라 온수에 거주하는 지나인들도 당지경찰서의 절대보호아래잇섯는바 이십칠일까지전부귀환하엿다

運轉에도試驗制
거리의寵兒"택시"
免許申請者每日遝至

경성부내에 소형자동차속『닷도산』의『택씨』영업이 허가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이에따라 소형자동차운전수가만히 채용될것을 생각하고 경기도경찰부보안과(保安課)에는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원서가 매일가티답지하야 이십칠일에는 약이백여명이 시험을 보앗다는데 소형자동차운전은종래에는 시험을보지안코 보안과에서 신체가건강하고 법규를다소처득하엿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에게는 전형하야 허가하엿스나 이번에소형『택씨』와 소형『트럭』영업이허가되야 그들이손님을 상대하게되엇스므로 운전면허를 주는데 제한을 부처서 자동차운전에 상당히 경험이잇는사람으로 자동차를 충분히 운전할줄아는 사람에게만 한하야 면허를 주기로 되엿다한다

國防獻金

【楊州】□□일현재까지 양주경찰서에서 취급한국방헌금 또는 황군위문금(皇軍慰問金)이 아래와갓다는데 중에는 구리면(九里面)중하리(中下里)중흥소방조(中興消防組)에서는 소방조원일동이 제방공사에나가 노력한돈삼십원을 헌금하엿다

金正淳七圓四十五錢 東彰學術講習所九圓五十八錢 裵振九二○圓 洪奈池二○圓 議政府中國人一同二十四圓 楊州公普同窓會三○圓 馬洙益百圓 村中又四郎五圓 李翔儀五圓 崔範鎬五○圓 全鋪振興會八圓九錢

皇軍慰問獻金

中興消防組一○圓三九錢 金龍源百圓

═長篇小說═ 花冠 【29】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세화살 (十三)

아모리 입이 무거운 배일현이기로 다른날 아침가트면

『안녕히 주무섯습니까?』

쯤 인사는 잇섯슬것이요 더구나 어제는 동옥이가 물에서 욕을보고 드러와 종일 누어잇섯스니 그것을 두고라도 한두마디쯤 인사말이 잇슬법 한것인데 똑 벙어리 쏘인사람처럼 동ー해가지고 입은 먹기만 위해 직히고 잇섯다。

『왜 당신 어디 아푸?』

정히가 엽헷 사람들이 딴해보혀 물엇스나 고개를 흔들뿐 아니라는말까지 애낀다。

동옥은 잠을 설치여 입맛도 업섯거니와 기분부터 상하여이내 식탁에서 일어나버리엇다

『밤에 내방을여보고 간게배일현이가 틀리지 안어! 제가무슨 상관일가? 제가 무슨감 독자나되나……』

재하와 불순한 접근은 업섯지만 손만이라도 잡혀던것을배일현이 보앗거니 생각하니 자기로서는 처음 당해보는 망신갓기도하다。정히와 재하가 딴쓰럽헤 나오라고 성화하엿스나 이날도 동옥은 바다로 나오고말앗다。

바다도 반갑지 안다。어제빠지엿던데를 차저가 보니 돌이잇스면 집어 던지고 십게밉살머리스럽다。

『어머니 한데나 도로가버릴가? 오늘로……』

송전도 그만 서글퍼지고 만다。무엇때문이라고 꼭 이름저가리킬수는 업스나 울고시퍼진다。조개껍질을 주어모아본다。하나도 가지고시픈것은 업다。힌것 바다로 던저버린다。다시 주어본다。다시 던저버린다。힌것 던지는데 뒤에서 누군지

『스트라익ー원』

하고 소리를 질은다。

『누가 놀려?』

돌아다보니 재 점잔은 어룬인데 한편 손을 번쩍 처들고 웃는것이다。새까마케 타진 얼굴을 자세히보니 또박게 선숙이 아버지다。

『아이! 유목사님 언제 오셋서요?』

하고 동옥은 그의 엽헤 낫선 청년이 한사람 잇기는 하나 어린아이처럼 달려갓다。

『거저 동옥이 갓더라니……』

『선숙이도 왓세요? 목사님?』

『아ー니 나만』

『왜 혼자 오섯세요?』

『나만 여기와 살어…… 나여기 사는줄 모르지?』

하는것이다。이 유목사는 동모의 아버지일뿐 아니라 동옥이가 중학때 다니던 예배당의 담임목사로 나이도 젊은편이엿지만 정열이 호협해서 남녀를 물론하고 학생들과는 동모처럼 작난도하고 웃음엣말도 잘하던 유영안(柳永安)목사이다。

『여긴 왜요 여기도 예배당이 잇나요?』

『아ー니、나 고거 좀 먹구파서……』

『왜 서울선 못 잡숫나요?』

『허! 중이 고길 좀 먹을라니까 말이지……』

하고 뚯고 모롤 웃음을 헛드린다。

『여기 어디 게시게요?』

『저ー 오매리、저ー 양철집웅한 큰집 뵈지?』

『네』

『건 우리 창고구 그 뒤에집이 잇지……』

『창곤 왜요?』

『허! 나 교역 고만 내노쿠 작년부터 여기와 정어리 공장 내서』

하는것이다。동옥은 유목사의아래우를 날새게 홀터보앗다。밀집모자에 사쓰바람에 때무든낫수건을 목에 걸친것까지 아닌게아니라 아모리 바다에서지만 목사님의 풍모로는 너머나 파탈이다。

『정어리라니오?』

『고기』

『고기 잡는데도 공장을 짓나요?』

『그럼』

『소천럼 큰 고긴가요?』

하니 여페 섯던 청년까지 웃는다。

『허! 정어리도 모르담! 청어보담은 작고 메리치보담은 훨신 큰데 바다에 나가 잡아오면 그걸 살마 기름을 내는거야』

『기름? … 그런데 왜선숙이 안 와잇세요?』

『인제 돈 뫄야 낭물처럼 저런 솜바레 별장을 더 짓구 다 다려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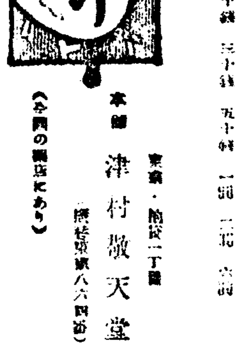
하고 눈을껌벅한다。

『뭐 돈 모시러 오셋나요?』

『암! 그리게 중이 고기맛보러 왓다구 안그래? 그런데 참 우리공장에 가볼가? 가면 동옥이가 또 깜작놀랄사람이 하나 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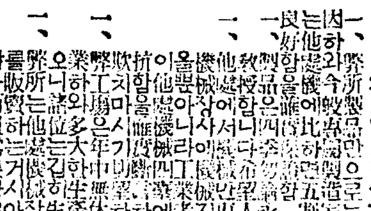
하는것이다。

下痢 腹痛의 權威劑
柏村博士創製 ヘルプ(헤루부)



本舖 津村敬天堂

東亞軍手製造家募集



東亞軍手 ゴム引万年軍手朝鮮總代理店 東亞手袋工場

新築家屋賣買開始
重要階級人士의文化住宅이大部分櫻ケ丘를占領함을따라交通道路下水溝等衛生施設이充分한模範住宅地입니다
▲純朝鮮式瓦家四間으로부터十餘間까지有하며價格은一間一百五十圓式京城府櫻ケ丘獎忠壇스線終點問議處
京城鍾路永保빌딩三階 朝鮮建築社 電話光化門一三四九

法人登記公告
光州地方法院長城出張所

株式失權公告
戊第六二、六三號水原郡南面花樹里七八八宋勞彬名義株式ハ商法第百五十三條一項ニ依リ失權トナリタルニ付公告ス
昭和十二年八月二十五日
華城自働車株式會社

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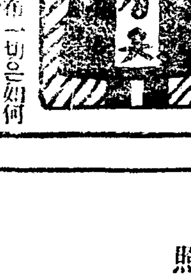
高級自動車讓渡
一九三六年式シボレー六汽筒約一萬哩、中古高級自動車를讓渡코저하오니希望하시는분은市內長谷川町 朝鮮호텔內푸레서ー氏에게問議하시옵

集金 係募集廿五才迄希望者ハ履歷書携帶本人來談アレ但シ保證金三百圓及ビ市內確實ナル保證人二名ヲ要ス面會時間午後一時ヨリ三時マデ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 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寫眞機 分되며텔・렛사F 2・8 舊市價(六四○圓)約半價讓渡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四오케ー레코ー드會社 電(本)四七三○番 金星

淋疾 急性慢性淋疾 五淋錠 淋疾
十餘年의硏究와數千의實驗으로 名의實効 絕對有効 壯談한다
人參鹿茸 最强力殺菌
靈藥研究所

雨衣都散賣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 紳士用레인코ート各種 生男女用各種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京城光熙門外新堂町 朝鮮防水布製造所 (定價表進呈) 電話本局二○二一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移轉通知
弊社事務所를 左記와如히 移轉執務케되엿사오니 某條록照亮하야주시기를 願하옵고玆에 謹告하나이다
移轉日 八月廿八・九日 移轉新事務所 東京市麴町區丸ノ內二丁目十二番地 丸ノ內仲通十五號館
本店
商品部 電線部 九月五日 東京市麴町區丸ノ內二丁目十六番地 明治生命館
株式會社 日立製作所

肩の凝り (背腰・手足痛 打撲傷・關節)
견비통에
한번바르면 시언스러운氣分이 난다 效果가잇고 깨끗하고산뜻하야 씻은듯이 이저버린듯 압흐고 결니는것이 모도업서진다
마마膏藥은本名마마ー푸라스타ー라고합니다
見本無代進呈
말로보다試驗! 얼마나効果가잇는가를試用해보십시오 갓가운有名藥店에서見本을無代進呈합니다

ママーの膏藥
定價 十錢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円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神田・大阪淡路町

胃腸을保護하야惡疫을殲滅하는滋强飮料
カルピス (갈피스)
我等의勇士도마시고잇다!
陸軍糧秣本廠은 今番北支를守護하는 勇士의健康과慰安을 爲하야 갈피스를恤兵品으로서 擇하야 納入하기를命하엿습니다。玆에삼가히感謝의意를表합니다
近間에陸軍糧秣本廠은今番北支의高級副官臨時軍務取扱等官少將과함께慰問金의用處에對하야여러가지로打合하엿는바同少將은將士는酷暑에口渴로苦痛하고잇스므로應急措處로서淸凉飮料劑의國形라무네와갈피스를보내는中이고、尤而된濾水機로惡疫을豫防하고잇다
東日、大每昭和十二年八月六日附夕刊所載의一節

本社 平壤支局 電話一○四四番

(事變의)影響 【京城商工會議所調査】

……品의 輸出入貿易은 即 一年의 日支間輸出入은 億五千九百六十九萬一千圓 一億五千四百八十三萬八千圓 億一千四百五十二萬九千圓 總貿易額에 比하면 輸出은 五.九% 輸入은 五.六%에 不過하나 今十二年은 支那側經濟의 購買力增加에 依하야 輸出入共히 增進을 보고잇든 此際 今次事變으로 日支貿易의 杜絶에는 支那原料의 輸入杜絶에 依하야 困難을 感하는 工場도 잇서 支那輸出一億五千餘萬圓의 約半 七千五百萬圓을 取扱하는 이곳 貿易業은 事變과 共히 梗塞되게 되엇다 그러나 專門家의 보는데 依하면 日本으로부터의 輸出商品은 모다 支那의 必要品이다 一時는 不買운동이 잇슬지라도 ……

第二、增產關係

……

第三、事變에 對한 犧牲

……

米는 增產치 안는다
其他食糧充實、工業原料增產
農林局豫算編成方針

時局을 反映하야 總督府明年度豫算編成은 從來의 方針에 큰 影響을 주어 各局課에서는 各其立場에 依하야 非常時對處의 重要事業擴充計畫에 主眼을 注入코잇는데 農林局에서는 特히 食糧充實工業原料作物의 增產에 關하야 如左한 方針으로써 明年度豫算編成에 當키로 되엇다

一、米는 今年은 內外地가 모다 非常한 豐作임으로 明年度에 特히 增產計畫을 樹立할 必要를 認치 안는다

一、其他의 食糧은 ……濟에 影響을 招來치 안토록 留意하야 適當한 對策을 講究할것

一、增產을 計畫키 爲하야 農家經濟의 安定과 經濟充足을 計畫하는 意味로 需給을 按配하야 增產을 計畫한다

一、各種原料作物은 製品需給의 變動에 留意하고 適宜의 增產을 計圖함

一、特히 燃料國策에 基한 無水酒精原料作物의 增產을 計圖함

一、耕地의 擴張整理를 要하는 것도 잇겟고 이點을 充分히 留意할것

金關係三法律 二十五日實施
鮮銀正貨도 評價變更

特別議會를 通過한 金準備評價變更法案、金資金特別會計法案及 產金法案은 二十五日부터 施行되고 日銀 鮮銀 台銀의 正貨準備는 二十五日부터 一圓에 二百九十미리그람의 比로서 新價되엇스며 金資金特別會計도 現實로 設定된 一方 產金買入도 從來대로 日銀을 通하기는 하지만 買入主體는 金資金特別會計로 되엇스며 工業用其他市中의 金需要에 對하야서는 日銀을 經하야 賣渡케 되엇다

中央無盡職制

……

鮮銀券增發原因
朝鮮內通貨分散
◇……大塚理事 談

鮮銀券增發은 …… 膨脹이 繼續되여 二十六日의 發行高는 一億六千七百餘萬圓으로 前月에 比하야 …… 이 增加에 對하야 鮮銀當局의 見解는 如左하야 北支關係의 增發이라기보다도 朝鮮內流通通貨의 膨脹이라고 보고잇서 ……

棉花補償制度
最高 最低 價格決定注目

方今 總督府에서 開催中의 各道棉作主任官會議의 協議事項中 가장 重要한것으로 一般의 注目을 끌고잇는것으로 棉作損失補償規定의 問題가잇다 이것은 棉作을 國家的見地에서 農家에 獎勵增產하려함에 棉市勢의 騰落에 依한 農家의 不安을 除去도록하는 一面에 最低價格을 定하여 그 以下로 低落할時는 國家가 그 損害를 補償하자는것이고 또 一面에는 最高價格을 定한後 그 以上에 達할時는 超過額을 積立하엿다가 萬一의 凶作時에 棉作農家의 救濟에 活用하자는것인데 이 最高、最低價格의 決定如何는 農家의 利害에 重大關係가 잇는것인데 農務課의 案으로는 每斤最高를 十三錢 最低를 七錢으로 하려고하엿스나 各方面에 異論이 잇서 今般會議에 附議하야 二十八日까지에 決定을 보게 될것이다 ……

振興懇談會
三十日商議서開催

北支貿易振興에 協力하고저 來三十日午後二時부터 京城商工會議所에서 共同主催에 依한 北支中小貿易振興懇談會를 開催하기로 되엇다 ……

資金統制는 큰 苦痛
그러나 참어야한다
◇……有賀殖銀頭取談

有賀殖銀頭取는 廿七日午前十一時五分 次發急行 飛行機로 渡東하얏는데 出發을앞두고 如左히 말하얏다

廿五日의 米穀關係會議에도 出席할 豫定이엇스나 飛行機로 出席할수업서 出席치못하얏다 臨時議會에 出席한後 來月中旬頃 歸京하겟다 事變을 契機로 我國의 財政經濟는 큰 轉換을 하여 모다 戰時體制下에잇게 되어 文字그대로 國難에 際會한때이므로 資金統制法案等도 此際 議論할 餘地가 업는 絕對的問題로서 …… 朝鮮도 勿論 큰 苦痛을 참어야할것이다 ……

鮮銀 保證準備 再擴張論擡頭

財政經濟와 戰時體制移行에 依한 資金統制는 그 關係法律案에 …… 朝鮮서도 日本內地와 가티 社債、借入金의 許可制等에 依하야 長期生產資金이 相當程度도 制約되겟슴으로 殖銀、東拓의 大債券이 圓滑히 消化되지못할 狀態로되는結果 鮮銀에 依한 朝鮮內의 資金源泉으로되어 發券銀行 中央銀行으로서의 機能을 最大限度까지 發揮할必要가 생기고 …… 北支의 軍票와 鮮銀券의 需要가 將來 去益 增加될것이므로 ……

日鐵淸津製鐵所
商工省命令으로決定

日本製鐵所의 淸津製鐵所設置는 日鐵側이 茂山鐵鑛의 買收를 希望하고잇슴에 對하야 三菱側이 鑛石만을 팔고저하는 意向임으로 商工省、總督府間에 過般來 折衝을 行한結果 大體原案가成立되어 商工省은 近間 日鐵에 對하야 淸津製鐵所의 設置를 命令키로 되엇다 …… 問題의 淸津築港도 …… 日鐵 三菱의 運輸設備와 提携하야 完成하리라한다

北支移民의 移民會社新設?

北支避難朝鮮人救濟에 出發한 …… 北支에 잇서서의 安全農村設置問題는 其後北支移民問題에까지 進展하야 鮮滿拓殖으로 하여곰 …… 資本金五百萬圓程度의 別個의 移民會社를 創設하자는 意見이잇다 …… 現地에서는 後者의 別會社案이 有力하야 結局別會社案으로 落着될터이라 한다

紅蔘輸出梗塞

……

株式 低落後에 更騰
今日의 市勢 (廿七日)

前場低落 …… 後場反騰 ……

英大使負傷事件 再落後更反騰

國債 依然不勢 續落

期米 底入觀의 反戾

前場少戾 ……

南塲六感

強弱說이 區區

事變과 株價

材料待의 場面

後場伸惱

朝取期米取組內容

正米 下支모양 不變

京城下支 ……

仁川不變 ……

大邱不變 ……

釜山保合 ……

今日財界 廿七日

米 …… 株 ……

京城物價 (廿七日)

……

海外經濟

手形交換·金利 / 銀行券 / 金銀價 / 對外爲替 / 正米 / 正租 / 雜穀 / 綿絲布 / 滿洲商況 / 綿油粕·麥粉 / 砂糖 / 生絲 / 人絹 / 棉花 / 綿絲 / 期米 / 株式 [market tables — figures illegible]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代金引換販賣酬應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

株式 玉 期米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期 東 米
趙俊鎬取引店

京城 仁川 金盃證券